

코스피 3748.89 (+0.52)	코스닥 859.54 (-5.87)
금리^(미국 3년) 2.555 (-0.014)	환율^(원·달러) 1422.20 (+4.30)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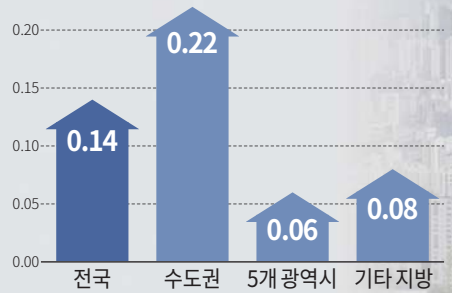


Economy

하나금융그룹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자료/KB주택시절리뷰

사진/뉴시스

전셋값 더 오른다 갭투자 잡으려다 전세입자 ‘날벼락’

수도권 전세가 26개월 상승
비수도권까지 상승세 확산
토지거래허가 확대 후폭풍
전세의 월세화 가속, 부담 ↑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전세 시장이 날벼락을 맞았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이미 2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취지는 집값을 끌어 올리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 매수)’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후폭풍으로 전세 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 수요는 임차인(실거주자)이 만들지만, 전세 공급은 사실상 ‘갭투자자(임대인)’들이 만드는 구조다. 따라서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 든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09% 올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4% 오르며 2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22%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3면>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서울 전세가격이 0.23%로 가장 컸고, 5개광역시와 기타 지방 등 비수도권도 소폭이지만 상승률이 확대됐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단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지정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매매거래 물량은 모두 전세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양지역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허구역에서는 민간임대 물량이 급감해 세입자는 선택지가 줄고,

전세에서 반전세, 이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임차시장 불안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대출규제), 9·7대책(대출규제+공급 확대)으로 전세 물량은 급감한 상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2만45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만1814건과 비교하면 22.9%나 줄었다. 경기도는 연초 3만1110건에서 2만750건으로 33.4%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KB전세가격전망지수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승 전망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52.1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KB부동산은 “올해 말까지 입주예정 물량은 수도권 3만3000호, 비수도권 2만6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4%, 84%에 그칠 전망”이라며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물량이 감소한 데다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줄어드는 등 전세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전세가격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8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월세 비중이 66.0%로 조사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64.4%, 비수도권 69.2%다. 비수기로 전체 거래량이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17.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9.5%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존 빌라 등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월세 거래가 많이 늘었다.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76.0%에 달했으며, 아파트도 46.8%(수도권 45.3%, 비수도권 4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민연금 새 사령탑에 복지·금융인사 물망

오늘 임추위 소집, 모집공고 발표
양성일·홍성국·김연명 등 거론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빠르면 오는 20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소집하고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8월 말로 3년 임기가 끝났다.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장직 공모는 과거보다 한층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데다 기금운용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사장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복지 전문가와 경제·금융 전문가 중 어떤 분야 사람이

신임 이사장에 임명될지에 쏠려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 중반까지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 등 복지 관련 인사들이 이사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박해준·전광우 전 이사장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후보로는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 전 차관은 조직 안정성과 정책 이해도 측면에서 능력을 갖춘 후보로 꼽힌다. 행정고시(35회) 출신으로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산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복지·연금 정책 라인에서 실무와 조직

운행을 경험해 제도 이해도가 높고, 공단과 정부 간 조율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홍 전 의원은 금융투자업계에서 현장을 밟으며 성장한 실무형 경제 전문가다. 일반 직원으로 입사해 대우증권 사장까지 오른 이력은 금융권 내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1000조원 규모의 기금운용 안정성과 수익률 제고가 우선시되는 공단을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연금제도를 연구해 온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다. 오랫동안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개편 과제를 다뤄왔고,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위원장 역시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가을 하늘 나는 블랙이글스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EDX 2025에서 한 어린이가 목말에 올라 공군 블랙이글스의 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AI 무인체계 진화… 조종사 없는 전장 현실로

방위산업 ‘무인화 시대’

AI(인공지능)가 전투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있다. 병력 감소, 예산 압박, 무인화 기술이 맞물리면서 한국 방위산업계는 ‘무인의 시대’ 안착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AI·무인화 경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방산기업들이 잇따라 무인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GA-ASI(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와 무인항공시

스템(UAS) 개발 협업을 발표했다. 양사는 MQ-1C ‘그레이이글(Gray Eagle)’을 기반으로 한 단거리 이착륙(STOL)무인기 ‘GE-STOL’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해상 기반 무인기 운용 가능성도 열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세르파의 제4세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운용 개념이 반영된 차세대 전차와 군용 다족보행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다각화된 임무 대응력 확보가 관건으로 이는 수송, 정찰, 전투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플랫폼 전략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해상 쪽에서는 LIG넥스원이 현재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체계개발 사업(약 399억원)을 수행 중이다. 감시·정찰 기능뿐 아니라 향후 해상 교전 능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한국 해군은 MUM-T 전력 구성을 목표로, 무인항공기(UAV)가 이착륙 가능한 드론 항공모함 개념을 추진 중이다. 기존 독도급 상륙함을 개조하거나 3만톤 급 경항모를 2030년대 후반까지 건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메트로 한줄뉴스



▲“대통령 이상 월급받으면서”… 존 리 우주청 본부장, 3년 성과목표 ‘부실’
▲유철한 권익위원장 “낮은 공익신고보호인용률 조사할 것… 전한길 발언은 기억 안나” /사진 뉴시스

▲허민 유산청장 “중국의 발해 편입,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유네스코와 대처할 것”
▲법사위 국감 거듭 파행… 여야, ‘대법 현장검증·발언권’ 두고 충돌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설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국세청장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장기 과제… 증여세 부모찬스 엄정 검증”

오너 3·4세 경영 리더로 약진... 식품업계, 인적쇄신 속도

CJ그룹, 이례적 CEO인사 선제 단행
이재현 장남 이선호 승진여부 관심

오뚜기 3세 함윤식씨, 핵심부서 순환
실무경험으로 차세대리더 입지 다져

삼양라운즈스퀘어 오너 3세
전병우 상무, 올해 승진 가능성 거론

국내 식품업계의 인사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실적 위기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CJ그룹이 CEO 인사를 앞당기며 신평단을 쓴 만큼 다른 기업들도 경영 리더십 재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7일 윤석환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를 CJ제일제당 CEO로, 이견일 CJ프레시웨이 대표를 CJ푸드빌 CEO로 각각 내정했다. 그룹 차원에서 CEO 인사만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CJ는 매년 말 진행되는 정기 임원 인사에서 CEO 교체, 신입 경영리더 승진, 조직 개편 등을 동시에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분리해 진행하며 2026년 정기 인사부터는 계열사 주도형 인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



전병우
삼양라운즈스퀘어 전략총괄(상무)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전무

이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와 세대교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그룹 차원보다는 각 계열사의 독립 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젊은 리더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임원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 미래기획실장(경영리더)의 승진 여부다. 이 실장은 지난달 약 6년 만에 지주사로 복귀해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가 이끄는 미래기획실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중책을 맡았다. 복귀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조직 안착과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는 시

각이 우세하지만, 올해 인사에서 승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CJ그룹은 신규 경영리더 승진 중심의 후속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CJ는 지난해에도 21명의 신입 경영리더를 신규 선임하며 ‘리더 육성 트랙’을 본격화한 바 있다. 현재 각 그룹은 내부적으로 인사 시점을 조율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경영 전면에 본격 등판한 오너 3~4세들의 약진도 예상된다.

오뚜기 오너 3세인 함윤식 씨는 지난 4월 말 경영관리부문 차장에서 마케팅 실 부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21년 사원으로 입사한 지 4년 만이다.

전략기획,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 핵심 부서를 순환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내부에서는 그가 경영 전반의 흐름을 익히며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영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보직을 옮긴 점은 향후 오뚜기의 브랜드 전략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녀 함연지 씨는 지난해 오뚜기 아메리카에서 마케팅 업무 담당 정규 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 김재우 씨도 2018년 입사 후 현재 오뚜기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는 등 경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불닭볶음면’ 브랜드로 승승장구 중인 삼양라운즈스퀘어의 오너 3세 전병우 전략총괄 상무는 지난해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 상무는 25세였던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됐다. 삼양식품은 올해만 여러 차례 수시 인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했다. 삼성전자 출신 경영관리 전문가 전수홍

상무, 전략 마케팅 전문가 김선영 본부장, 그리고 지난달 글로벌 소비재 경력 25년의 김기홍 전무를 잇따라 선임했다.

농심의 오너 3세로 신동원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은 지난해 전무로 승진해 근무하고 있다. 웰니스·건강식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자율복장 체도를 선도하는 등 조직문화를 젊게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의 ‘투톱 체제’로 차세대 경영을 이끌고 있다. 허 사장은 그룹 글로벌BU장으로 해외 사업을 총괄하며 파리바게뜨·던킨·배스킨라빈스 등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으며, 허 부사장은 신사업과 디지털 전환·해외가맹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과 조직 효율화를 통해 차세대 경영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임원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연말 인사가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 향후 10년 한국 식품산업의 권력지형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 트럼프와 골프회동

트럼프, 韓·日·대만 기업 대표 초청
수장들-트럼프 대화내용에 초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 기업 대표들을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 초청해 한나절에 걸쳐 골프를 치며 시간을 함께 했다. 이번 골프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출발, 8분 뒤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에 도착한 후 각 조가 각 홀에서 동시 티오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하는 ‘샷건’ 방식으로 라운딩이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마추어 골프 경기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가자단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 ‘측면 지원’에 나선 기업 수장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

후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은 지난 7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라운딩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경기가 끝난 뒤 검정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단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

21일 국내 첫 ‘APEC 재무장관회의’

인천 영종서 사흘간 개최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올해 APEC 의장국 자격이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개

최 전 마지막 장관급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선보이고, 회의 성과 및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재무장관·구조개혁장관회의가 오는 21~

23일 사흘간 인천 영종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다. 이달 31일 경주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APEC 21개 회원국에서 모인 고위 경제관료들은 올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명의료 관리 위탁기관 늘어나는데 공용윤리위 인력·예산 제자리 걸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역별 13곳에 공용윤리위 설치
협약기관 7년간 51곳→216곳 확대
담당직원 13명 중 정규직 5명 불과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소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 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 여야는 또 ‘네 탓’ 공방만

서울 집값 37주째 오름세 이어
실수요자 부담만 커졌단 지적

민주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책”
국힘 “실수요 막는 규제 실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19일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시장은 규제의 직격탄을 맞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 /뉴시스

폭등의 원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 제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강화로, 정치권은 공방으로 답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교육지책”이란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등 강력한 조치로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책의 본질은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책 발표 직후 주식 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채선을 위한 정치 선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고 비판

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막는 수요억 제책”으로 규정하고 서울 도심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정책으로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이 넘친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대인데 ‘9억 이하 70% 대출 가능’만 반복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빛 없이 집 사는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LH 중심 외곽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을 늘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2030년 까지 서울 실입주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 데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 10·15 대책에서 ‘수요 억제’로 간 건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처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라 37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1.63%), 마포구(1.29%), 광진구(1.49%) 등 강북 주요 지역에서 옴복이 두드러졌고 송파(1.09%)·양천(1.08%)·강동(0.85%) 등 강남권 역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는 이달 전용면적 163㎡가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24억원) 대비 3억 3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의 경우 10월 전용면적 84㎡가 21억 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9개월 만에 5억 3000만원 올랐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유·무인 복합체계 확산… “효율적 자율시스템 통제가 승패 가를 것”

m-커버스토리

AI·자율 시스템 전장 재편

병력 감소가 부른 기술 대체
데이터·AI 통합 전력 경쟁
생존 전략 된 자율화 흐름

조종사가 사라진 하늘을 이제 무인기가 채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 시스템이 전장을 재편하면서 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 비용 압박이 맞물린 ‘무인’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전쟁의 주체는 사람에서 기계로 이동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 없는 전쟁, 현실이 되다

한국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4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향후 10년간 병역자원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 전력 유지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한정된 인력을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인체계다. 실제로 군은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 무인차량 등 ‘사람 없는 장비’의 도입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 전장의 인력 문제를 기술이 대신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인화는 단순한 인력 보완책을 넘어 전쟁 양식을 바꾸는 근본적 요인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고가의 중고도 무인기(MALE)가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저비용 소모성 드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일인칭시점(FPV) 드론을 분대 단



FPV(일인칭시점 드론)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우크라이나군.

위로 운용하며 적 전차와 보급선을 공격했다. 대당 100만원 안팎의 FPV 드론이 수천억원짜리 장갑차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속출했다. ‘싸고 많은 무기’가 ‘비싸고 정교한 무기’를 압도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인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미 각 군에서 임무별 무인화 전환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싸고 많은 무기’의 반격

무인화 전환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닌 경제 논리도 적용되어 있다. 과거에는 한 발의 미사일로 전략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수십 대의 드론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월 2700대씩 생산하며 ‘양으로 압박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나삼스, IRIS-T 등 고가의 미사일로 대응했지만 막대한 비

용 부담으로 작용해 이후 대공포·전자전 장비·요격 드론 등 저비용 방어 체계로 전략을 바꿨다. 무기 효율의 기준이 ‘정밀도’에서 ‘비용 대비 지속력’으로 옮겨간 것이다.

AI와 자율 시스템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과거 로봇이 단순 반복작업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무인기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통해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센서로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비행 경로를 계산해 목표물을 자동 타격하면서 인간은 명령을 내리고 통제하는 위치로 물러났다. 전쟁의 주체가 점점 더 ‘인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인체계 경쟁의 본질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와 AI 통합 역량이다”며 “앞으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율 시스템을 통제하는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을 재편하는 기술 경쟁

세계 주요국은 이미 무인화를 미래 전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공중전력의 핵심으로 ‘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 중이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뤄 공대공·공대지·전자전·정찰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무인기다. 미 공군은 유인기 한 대당 무인기 두 대를 배정하는 체계를 목표로 1000~2000대 조달 계획을 세웠다. 제너럴 아토믹의 ‘YFQ-42A’와 안두릴의 ‘YFQ-44A’은 이미 시험 비행을 마쳤고 내년 양산 결정이 예정돼 있다.

미국이 ‘네트워크 협업형 전력’을 구

축하고 있다면 중국은 ‘물량 중심의 전면 포화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A2/AD(Anti-Access/Area Denial·반접근 지역거부)전략을 기반으로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 ‘동평-61’과 SLBM ‘JL-3’ 외에도 무인 수상정, 무인잠수정, 사이버전 장비 등 첨단 무인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독일·스페인 주도의 ‘FCAS(Remote Carrier)’ 프로그램을 통해 투하형 무인기를 실행 중이다.

이같은 무인화 흐름은 군사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는 드론·로봇·자율 플랫폼 관련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AI 기반 무인체계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방산업계의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데이터·AI 융합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전장 클라우드, 네트워크 통제 체계 등 ‘전장 운영 OS(운영체제)’ 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무인화 중심, 차세대 전장 패러다임 전환

>> 1면 ‘AI 무인체계 진화…’서 계속

항공부문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KAI는 전투기-무인전투기(UCAV)-소형 다목적무인기(AAP)가 연계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전투기에 무인전투기 4대를 연결하고 무인 전투기마다 소형 다목적 무인기 4대씩, 총 1대당 16기의 다목적무인기가 장착된다. 과거에도 KAI는 정찰 UAV 송골매(RQ-101)를 한국군에 배치한 이력이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도 무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육·

해·공군 각 군별 특성에 맞춘 드론 운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부대별로 전문 교육장을 신설한다. 이번 사업에는 약 20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AI·데이터 융합, 국제 협력, 수출 생태계 재편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래 전투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무인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의 협업 체계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AI와 자율 시스템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접근성·신뢰성 높인 ‘뉴 하이브리드 뱅크’로 틈새시장 공략

금융의 미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전세계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창립 14주년 기념사에서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이란 전략적 결단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임직원은 물론 주주, 지역사회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금융그룹에서 시중금융그룹으로 전환한 iM금융그룹은 적극적인 영업망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거점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강원 등 진출이 미진했던 지역까지 영업망을 확대 중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유출로 지방금융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진 가운데 지방금융 특유의 노하우와 시중은행의 신뢰성, 인터넷 뱅킹의 장점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로 성장한계 돌파구 마련
거점지역 대구·경북 벗어나 영업망 확대 추진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총 14개 거점점포 출점
PRM 영업거점 활용, 비대면·플랫폼 영업 확대

대구·경북 중심 전략 유지… 지역 동반성장 추진
핀테크·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무료 컨설팅 제공

CEO 승계 프로그램, 핵심 임직원 역량 고도화
사외이사 권한 확대… ESG 지배구조서 강점

◆ ‘틈새시장’ 공략… ‘뉴 하이브리드 뱅크’

iM금융이 추진 중인 영업망 확대의 핵심은 은행 계열사인 iM뱅크다. iM뱅크는 지방금융의 중소기업 대출 노하우를 살린 ‘거점점포’를 전국에 출점해 영업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 수를 줄여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iM뱅크가 표방하는 목표는 인터넷은행의 접근성, 시중은행의 신뢰성을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의 완성이다.

iM뱅크는 작년 7월 강원 원주에 첫 거점 점포를 개설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금천과 경기 화성에 거점 점포를 출점했다. 올해는 서울 강서,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각각 점포를 열었다. iM뱅크는 오는 12월 서울 강남과 강동에 거점 점포를 추가로 개점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총 14개의 거점점포를 출점한다는 목표다.

거점점포는 ‘기업금융전문가(PRM)’의 영업 거점으로도 활용된다. iM뱅크가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PRM’은 금융권 퇴직자를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지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점장’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각 PRM은 소속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방문형 금융 서비스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iM뱅크 소속 PRM이 취급한 총 여신 잔액은 약 4조 4000억원으로, PRM 1인당 연 평균 대출 유지 금액은 95억원에 달한다.

소매금융 부문에서는 비대면·플랫폼을 중점으로 영업을 확대한다. 거점점포 외 영업점 출점을 최소화해 비용을 효율화하고, 금리 경쟁력이 높은 비대면 전용 상품을 공급해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주담대 갈아타기’에 발맞춘 주담대 취급 확대, 초단기 적금 특판 등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시중은행 전환 이후 대출 자산 성장의 70% 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전국구’ 전환에도… ‘대구·경북’ 중심 지속

iM금융은 전국 단위의 영업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을 전략의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란 역할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에서다. 앞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금융그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iM뱅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점포(영업점·출장소)는 173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점포 수 합계인 150개보다 많다. 특히 영업점 운영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군 지역의 경우, 시중은행 가운데 iM뱅크만 점포를 운영 중인 경우도 잦았다.

기업 투자 활동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속한다. iM금융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핀테크·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은 시중금융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 지역 내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또한 2021년 문을 연 ‘혁신금융컨설팅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경영·정책 등 다방면에 걸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기업가치의 새로운 지표로 부상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영역까지 컨설팅을 확대했다.

◆ 선진적 ‘지배구조’… ‘ESG’에 강점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ESG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부상한 가운데, iM금융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iM금융은 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iM뱅크(옛 DGB대구은행)에 도입했다. CEO 승계 프로그램은 수 개월에 걸쳐 행장 후보를 검증하며, 외부 전문가 교육 등을 거쳐 이사회의 다면 평가와 인성 검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 기존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행장을 선임하는 관행을 혁파해 승계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지난 2023년 정립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및 경영승계 모범관행도 iM금융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모델로 했다.

iM금융은 또한 지난 2024년 그룹 내 주요 인력을 잠재적 CEO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정기 연수와 멘토링 등을 통해 핵심 임직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HIPO’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성장욕구를 지원하고, 검증된 인재풀을 상시 관리한다는 목적에서다.

또한 iM금융은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수단도 마련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iM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인원 9명 가운데 황병우 회장을 제외한 8명의 이사진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사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ESG기준원을 비롯해 주요 ESG평가기관들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금융의 지배구조는 영국의 유명 출판사 루틀리지(Routledge)가 발간하는 학술지 ‘아시아 퍼시픽 비즈니스 리뷰(Asia Pacific Business Review)’에서 우수 ESG경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루틀리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적극적인 경영 참여,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 사례 등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iM뱅크 제2본점.

/iM뱅크



지난 2024년 7월 개점한 iM뱅크 원주지점. 원주지점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처음으로 문을 연 역외 점포다.

/iM금융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구윤철 “美, 3500억弗 선불 요구 사실… 트럼프 설득 관건”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美 베선트 재무장관 입장변화 기류
러트닉 상무장관과 논의 가능성
대출·보증 긴 형식이 가장 현실적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상대측은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실무진이 입장을 선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반면, 결국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우리 측 협상단은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선불)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선불 형식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저 특유의 수사로 여겨졌으나 선불 요구가 실제 확인됐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양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

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의 방식인데 최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G20(주요 20개국)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여러 번 만

났다”며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걸 베선트 장관도 안다”며 “(베선트가)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얘기했을 걸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베선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맡고 있다.

우리 측이 베선트-러트닉 팀을 설득한 다 해도 최종 관문 백악관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의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 및 원화 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얘인지 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환 안정성이 담보되면 투자에 걸림돌이 없다는 질문에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 하느냐,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출·보증을 긴 대미투자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미,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APEC 정상회의 ‘분수령’

김용범 정책실장, 美 일정 마치고 귀국
러트닉 장관과 펀드 운용방식 조율
美 대두 수입,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장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뉴시스

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

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

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파행 속출’ 국정감사… 금주도 법사위·국토위서 공방 예정

與野, 지귀연 판사 공정성 의혹과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대립 전망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1주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관례상 이석하는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은 뒤 여당 의원이 일방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치러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내 난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총 37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강훈식 비서실장, ‘K-방산’ 특사로 유럽행

독일·폴란드 등 방산 협력국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날 낮 12시25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한 우리

나라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는 현재 총 562억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 차원에서 알리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들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임명 이틀 만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산국 사이에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서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투자회복·보장성 강화 ‘투트랙’ 신한라이프, ‘빅3’ 진입 청신호

투자손익 개선... 순이익 3453억
한화생명 제치고 교보생명 추격

무해지 판매 확대로 영업 질 제고
하반기 금리하방 위험 관리 과제

신한라이프가 투자 회복과 보장성 영업의 질을 통해 존재감을 증명했다. 하반기 금리·자산건전성 관리가 이어지면 ‘빅3 위협’ 구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3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억원 늘었다. 보험손익이 306억원 소폭 감소했지만 투자손익이 491억원 늘어 전체 이익을 끌어 올렸다.

무·저해지 상품 판매 증가로 영업의 ‘질’도 좋아졌다. 13회차 유지율은 73.52%로 전년 동기 대비 6.85%포인트(p) 상승했다. 25회차는 52.45%로 3.14%p 상승해 저해자 개선이 뚜렷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을 통한 이익 인식이 안정될 수 있다.

자본·리스크 측면을 보면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99.6%로 직전 분기(189.28%) 대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자산건전성은 가중부실자산비율 0.18%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상승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증권’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와 일부 가계대출 연체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된다. 단순한 신용위험 확장이라기보다



신한라이프 사옥.

/신한라이프

분류 조정에 따른 기계적 상승 요인이 섞여 있다는 분석이다.

운용 포트폴리오는 채권과 수익증권 비중이 큰 보수적 구성이다. 상반기 수익증권 공정가액(시가)은 5조8445억원으로 금리·크레딧 스프레드가 우호하면 평가이의 실현 여지가 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지만 부채 할인을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더 크게 불어 K-ICS 비율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도 존재한다.

공시를 통해 신한라이프는 “K-ICS 비율은 후순위 채권 발행, 장기금리 상승,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상승했다”며 “보험부채 할인을 현실화, 계리적 가정·모델 변경, 주주배당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의 하반기 호실적 연속성의 분수령은 ‘금리 하방 위험 관리’다.

현재 K-ICS는 199.6%지만 금리가 50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약 14.4%p, 100bp 인하면 31.9%p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유채권 평가이익이 손익엔 플러스여도 부채 할인을 하락 충격이 더 커 자본비율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 ALM(듀레이션 매칭), 금리·스프레드 헤지, 후순위·신종자본 등 완충자본 관리, 환율 노출 점점이 하반기 핵심 과제다.

아울러 하반기 생명보험업계 ‘빅3’ 구도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순익 규모는(업계 1위 삼성생명 제외) 교보생명(5853억원), 신한라이프(3453억원), 한화생명(1797억원) 순이다. 순익만 놓고 보면 신한라이프가 한화생명을 앞섰고 교보생명과 격차도 좁혀졌다.

다만 영업이익·총자산 등 잣대를 바꾸면 해석은 달라진다. 연결 기준이나 분기 단면, 영업이익·총자산·원수보험료·신계약가치(VNB) 등 체급·장기 경쟁력 지표를 적용하면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자산만 비교하더라도 교보생명 127조2133억원, 한화생명 126조7970억원으로 신한라이프(60조2247억원)의 두배 이상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장기적인 안전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자산, 지급여력비율 등 여러 건전성 지표들도 함께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GITEX 글로벌 2025’에서 이창권 KB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장(왼쪽)과 매튜 화이트(Matthew White) VARA 최고경영자(CEO)가 악수하고 있다.

/KB금융그룹

‘GITEX 2025’ 참관한 KB금융 AI·핀테크 등 투자 트렌드 탐색

디지털 금융 글로벌 행보 본격화
현지 VC와 손잡고 혁신 생태계 모색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GITEX 글로벌 2025’에 디지털 혁신 주도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GITEX 글로벌 2025는 두바이 디지털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다. 전 세계 180여개국, 6500개 이상의 기업, 투자자, 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이는 혁신의 장이다.

이창권 KB금융 디지털·IT부문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참관단은 현지 벤처캐피탈(VC), 투자사 등과 만나 AI·핀테크·블록체인·사이버 보안 등 역동적인 현지의 기술 투자 트렌드를 파악했다. 더불어 두바이 정부 유관기관을 방문해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특히 KB금융 참관단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A2Z(이하 에이투지)’와 AI기반의 글로벌 위성·지리 정보 분석기업 스페이스42의 공동 전시부스에서 생산적 금융 관점의 첨단산업·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 정부에서 설립한 VARA(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와 DSO(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의 대표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과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기술 기업 육성 전략 등 중장기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KB금융은 이번 참관단 파견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분양 캘린더

이달 넷째주 10곳서 총 4500가구 공급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공급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브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총 5곳이 개관 예정이다.

라인건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회천중앙역파라곤’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 규모다. 도보권 내 1호선 회천중앙역이 2027년 개통 예정이고 차량 이동 7분 거리의 덕정역(1호선)이 2030년 GTX-C노선 추가 개통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74~84㎡, 총 1524가구 규모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 단지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이 가깝다.

/전지원 기자 jiw13@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에 1조원대 비료 플랜트 기공식

“투르크 산업 고도화 핵심 프로젝트”

정원주 회장, 투르크 대통령 등 참석
인산비료·황산암모늄 생산설비 건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5일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브에서 개최된 ‘미네랄 비료 플랜트’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7억8400만 달러 규모(약 1조810억원)의 이번 프로젝트는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와 10만 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37개월이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번 기공식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풍요로운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미네랄 비료 플랜트가 가스화학 산업과 국가 농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앞서 지난 14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의 의장을 예방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플랜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우건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참여를 추진 중인 다수의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대우건설의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시공 경험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우건설의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6차례 현지를 방문, 국가최고지도자·대통령·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하며 사업 협력 방안과 현지 산업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안상미 기자

카드 News

신한카드-유니세프

아동 마음건강 행사 성료

신한카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폭포책방 아름인도서관’에서 ‘읽는 마음, 자라는 마음’ 행사를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과 청소년이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문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마음건강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 ▲김지수·김혜민·장수정 작가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북콘서트 ▲마음 카드·마음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신한카드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날 참여 도모

KB국민카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과 협력해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된다. 경주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문화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행사 기간 경주 지역의 영화관·공연장·전시장 등 300여 개 문화시설에서 KB국민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1만원의 문화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9일 “이번 행사가 지역 문화 소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카드-무신사-올리브영
플레이박스 이벤트 진행

현대카드가 자사 상업자 전용카드(P LCC) 파트너사인 패션·뷰티 기업인 무신사, CJ올리브영과 함께 참여형 체험 이벤트 ‘플레이박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카드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즉각적인 참여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보인 첫번째 리액티브 캠페인이다. 소비자의 실시간 행동과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레이박스를 열어보고, 그 안에 담긴 패션, 뷰티, 뮤직 아이템을 확인하고 소장하는 방식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관세 효과’ 넘어선다… K-철강, 기술·친환경으로 승부수

포스코·현대제철, 체질개선 박차

AI·수소제철로 고부가 전략 가속
中 저가공세 뚫고 판재류 수익 방어
원가 안정에 스마트제철 투자 확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후판 반덤핑 관세 효과와 원자재 가격 하락, 판재류 선방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양사는 인도·북미에서 현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 자동화·수소환원제철 등 기술혁신과 자동차·전기강판 중심의 고부가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4380억 원) 대비 36% 증가한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은 매출 5조8000억 원, 영업이익 113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19%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에프앤가이드는 정부의 저가 철강제품 수입 규제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



현대제철 전경.

/현대제철

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산 중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27.91~38.02%)를 부과한 뒤 8월 최종 관정에서 최대 34.1%를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열연강판도 지난 9월 23일부터 중국산(28.16~33.10%), 일본산(31.58~33.57%)에 잠정 관세가 고시됐다. 실제 중국산 중후판 수입량은 지난 3월 9만

1575톤에서 8월 5만0515톤으로 44.8% 줄었고, 열연강판도 고시 직후인 9월 중국산 수입이 전월(13만1520톤)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제철용 원료탄은 9월 기준 톤당 187달러로 8월 대비 3.1%, 연초 대비 4.6% 떨어졌으며, 철광석도 105

달러로 지난해 초보다 약 22% 낮다. 원가 하락 효과로 판재류는 수익성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9월 말부터 부과된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판가 인상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달 말 철강 구조조정 추가 방안을 발표할 경우 내년부터 공급 과잉 완화도 기대된다.

양사는 개선된 실적 흐름을 기반으로 현지화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화 전략에 집중한다. 인도에서는 JSW그룹과 일관제철소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부지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현대제철)과 미국 내 합작 철강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 제강 공정의 자동화와 인공지능(AI) 예측제어를 강화해 스마트팩토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용 고망간

강 등 신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액화수소용 고강도 강재를, 오는 2028년에는 인바 대체 저가 송전선 소재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한 제품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고강도·고성형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소재인 3세대 초고강도 자동차강판 설비를 구축 완료하고 현재 HMG 등 주요 완성차 고객사 테스트에 착수했다. 철스크랩·직접환원철(DRI)·고로 쇳물을 결합한 ‘하이큐브(Hy-Cube)’ 공법을 적용해 저탄소 자동차강판 상업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고부가 제품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친환경·고품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oul.co.kr

K-태양광, ‘脫중국 밸류체인’ 재편 가속

美 PFE 규제 내년 본격화 中 부품 쓰면 세액공제 불가 한화·OCI·현대 등美행 박차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중단하는 PFE(금지외국기관) 규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이 ‘비(非)중국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속속 Non-PFE(비금지외국기관)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발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금지외국기관(PFE) 으로부터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PFE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특정국과 연계된 기업·기관을 의미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근래 공급망 전면 재편에 나서고 있다.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상당 공정을 중국 외 지역에 구축하고, 원재료·중간재 전략을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동남아 생산기지과 미국



OCI홀딩스 베트남 웨이퍼 공장 조감도. /OCI홀딩스

현지 공장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통해 PFE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확보해 웨이퍼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연 2.7GW 규모의 해당 공장은 이달 말 완공 예정이며, 시운전 후 이르면 내년 초 Non-PFE 웨이퍼를 생산한다. 회사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투입해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직계열화를 구축,

미국향 Non-PFE 체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에 잉곳·웨이퍼·셀·모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솔라허브’를 조성 중이다. 완공 시 잉곳·웨이퍼·셀 각 3.3GW, 모듈 8.4GW의 생산능력을 갖춘 북미 최초의 통합 생산단지가 된다. 미국 내 생산으로 세액공제 요건에 정면 대응하며, 폴리실리콘도 Non-PFE 라인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한화큐셀은 지난 2022년 OCI홀딩스와 오는 2034년까지 약 10억5000만 달러(1조4000억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을 맺어 상당 부분 수요를 확보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또한 PF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확대 및 미국 내 생산시설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쏠리는 배경으로 구조적 제약을 꼽는다.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에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국내 생산만으로는 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정부가 가격 격차를 보전하기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 ‘앰비언트 AI’로 미래 비전 제시

실리콘밸리서 ‘테크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글로벌 우수 인재들과의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인재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 방향 및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2025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 진행됐다.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삼성전자 경영진에는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

리서치장(사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앰비언트 AI’”로, 각 사업부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삼성리서치 AI센터장 김대현 부사장은 “자율적 목표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Agentic AI)”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AI로 일하며 성장하는 ‘AI 드리븐 컴퍼니(Driven Company)’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빠르고 과감하게 발굴해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사장은 “도전과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AI 맞춤형 김치맛’으로 김치맛 완성

‘디오스 AI 오브제 김치톡톡’ 선포 AI로 사용 패턴 분석해 최적온도 유지

LG전자가 인공지능(AI)으로 ‘김치맛은 더 살리고’ ‘구독 케어업 서비스로 위생 관리’는 더 강화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신제품(대표 모델명: Z495)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제품은 LG전자 김치냉장고 중 처음

으로 ‘AI 맞춤형’ 기능을 적용했다. 이 기능은 썬큐 앱으로 포장김치 바코드를 찍으면 입력되는 김치 종류 및 제조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김치맛을 내도록 온도를 맞춰준다. 또 AI로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해 냉장고 문을 많이 여는 시간에는 냉기 분사를 중단해 성예를 제거하는 ‘제상동작’ 시간을 조절,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LG전자는 김장철을 제외하고는 각 칸을 김치 보관이 아닌 야채·과일이나

쌀·잡곡 보관, 냉동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탑재했다.

먼저 냉장고 상층칸을 좌우로 분리하는 다용도 분리벽을 업계 최초로 적용해 각 공간을 김치·냉장·냉동으로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철에는 상층칸 좌우를 모두 김치 보관 모드로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개별 칸을 냉동고나 냉장고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491리터(L) 대용량을 상칸 좌·우, 중층칸, 하층칸까지 독립된 4개 칸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KAIST 특강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엔지니어 출신 CEO인 문 대표는 이날 피벗(전환)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리더십 특강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는 ‘피벗’ 역량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벗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며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진 역량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뜻한다. 문 대표는 “기업도 사람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피벗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생존을 좌우한다”며 “LG이노텍도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회사의 원천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미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강에서 문 대표가 지속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가치’다.

그는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고객의 요구로 개발한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먼저 제안해 개발한 기술의 가치는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차별적 고객가치가 곧 우리 기술을 명품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친환경·신뢰 ‘3박자’… 중형 조선사, 하반기 수주 낭보

대한조선 한달새 총 10척 추가
수주 잔량 27척, 3년치 일감 확보

HJ중공업 최근 선박 총 5척 수주
이르면 내달 美정부와 MSRA체결

케이조선 올해 10척, 8200억 성과



지난해 대한조선이 인도한 8000TEU급 컨테이너선의 모습.

/대한조선

상반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대한 등 국내 중형 조선사들이 하반기 들어 연이어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다. 빠른 납기와 맞춤형 설계, 친환경 기술 경쟁력, 꾸준히 쌓아온 신뢰가 수주 회복을 견인하며 최대 3년치 일감을 채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최근 파나마 선사로부터 약 3300억 원 규모의 8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 지난 9월 대형 원유운반선 8척을 확보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총 10척의 선박을 추가로 따낸 것이다. 특히 9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10척 중 8척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대한조선의 현재 수주 잔량은 27척으로 약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한조선은 지난해 8척(약 8억 4000만 달러)을 수주했으나 올해 이미 10척을 확보했다. 당초 10~12척, 약 9억 6000만

달러를 목표했지만 초과 달성 가능성도 커졌다. 회사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영국선급(LR)과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공동개발(JDP)을 체결했으며,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셔틀탱커 설계 인증(AIP)을 획득했다.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며 내부적으로는 합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HJ중공업도 수주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에이치라인해운으로부터 1만 8000㎥급 LNG 병커링선 1척을 따낸 데 이어, 9월에는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6400억 원 규모의 885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회사는 LNG·메탄올·암모니아 추진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컨테이너선에도 연료 효율과 적재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를 적용했다.

방산 선박 부문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HJ중공업은 고속상륙정(LSF-II), 참수리급 고속정, 독도함·파라도함 등 1200척 이상의 합정을 건조·정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준비 중이다. 지난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실사단이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자격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르면 11월 중 미국 정부와 합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조선 역시 하반기 들어 수주 회복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 선사로부터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약 1290억 원)을 수주하면서 올해

누적 총 10척, 약 8200억 원(읍선 2척 포함)으로 작년(11척)과 유사한 수준이다.

케이조선은 MR(5만 톤급)석유화학운반선 부문 세계 2위, LR1(7만 4000톤급) 석유화학운반선 부문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핵심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시장에서 고 효율·고부가 설계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내년 8월 미 해군 MRO 사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15만 CGT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에 따른 발주 지연의 결과다. 하반기 들어 해운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형 조선사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도 확대되면서, 과거 산업은행 중심이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넓어져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인 만큼 상황이 좋을 때 수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다수의 중형 조선사가 추진 중인 MRO 사업이 향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고려아연

中 수출규제 1호 품목 ‘갈륨’ 공장 국내 신설

고려아연이 국내서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생산 공장 구축에 나선 데 이어 중국의 수출 규제 1호 품목인 갈륨을 공급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한다.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고려아연의 이번 공장 신설은 한국의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57억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 제련소에 갈륨 회수 공정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신 갈륨 회수 기술에 대한 최적화와 상용화에 성공해 공장 신설 비용을 대폭 줄였다. 그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8년 상반기 시운전을 마치고 상업 가동에 돌입해 연간 약 15.5톤 갈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10억원의 이익(갈륨 가격 1kg 당 920달러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갈륨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갈륨을 핵심 광물 33종의 하나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갈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7%(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갈륨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갈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국내서 자체적으로 갈륨 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의 자원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CJ대한통운

BPO 전문사 TCK와 초국경물류 상호협력

CJ대한통운이 글로벌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기업과 손잡고 초국경물류(CBE)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좁은 국내의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셀러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CK)와 ‘CBE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TCK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5000여 고객사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IT 솔루션 개발, 교육 컨설팅부터 이커머스 쇼핑물 운영 대행, 디지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절반 “AI 도입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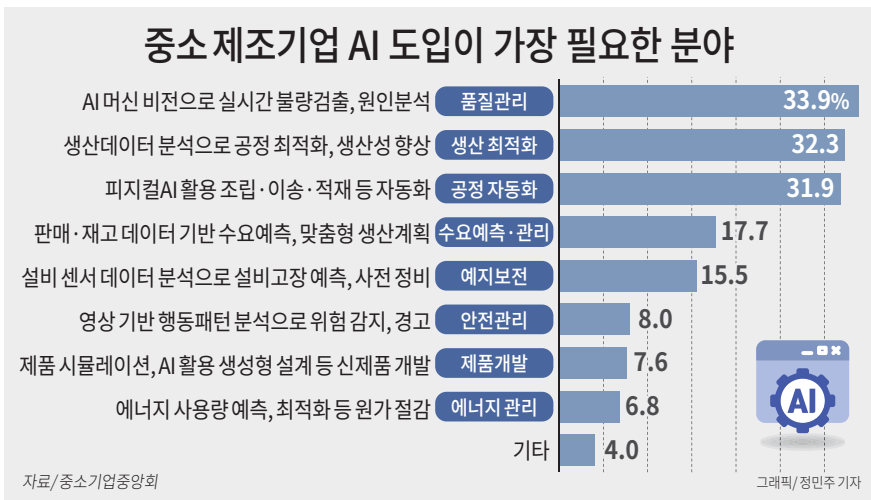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제조사 502곳 조사

도입 어려운 이유 비용·인력부족
‘투자액 1억이상’ 답변 31% 그쳐
72% “정부 직접 자금지원 필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 등의 장벽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AI 투자에 1억원 이상을 쓰겠다는 곳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아울러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요구로는 ‘직접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6곳만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AI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47.4%가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수적인 답변인 ‘보통’까지 포함하면 응답기업

의 78.5%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입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컸다.

AI 도입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초기 비용 부담’ (44.2%)과 ‘전문인력 부족’ (20.5%), ‘AI 기술을 어떻게 공정에 적용할지 전략 부족’ (14.9%) 등

을 주로 들었다. 비용 부담 때문에 1억원 이상을 AI 도입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은 31.1%에 그쳤다. 나머지 68.9%는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이라고 답했다.

AI 도입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 자금 지원’이 7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AI 전문 컨설팅 (21.9%) ▲전문인력 양성 지원 (19.3%) ▲신뢰성 높은 AI 공급기업과 매칭 지원 (16.7%) 등을 희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품질관리’ (33.9%), ‘생산 최적화’ (32.3%), ‘공정 자동화’ (31.9%) 등을 주로 꼽아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큰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들의 54.6%는 정부가 ‘AI팩토리’와 같은 AI 기반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해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승호 기자 bada@

‘脫중국’ 포스코퓨처엠, 호주·탄자니아 등 공급망 다문화

포스코인터, 탄자니아 광산개발 착수 2028년 생산… 연간 6만톤 흑연 확보

전방 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탈(脫)중국’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조달망을 강화하며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흑연·음극재 분야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호주 광산 업체 시라 리소시스와 연간 6만 톤 규모의 모잠비크산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열사 포스코인터 내셔널은 이달 초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600만 톤)로 평가받는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2028년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그룹 차원에서 연간 6만 톤의 흑연을 향후 25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음극재 공정 내재화도 병행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5월 약 4361억원을 투입해 구형흑연 생산 법인 ‘퓨처그라프’를 설립했고 전복 부안 새만금 공장에서 2027년부터 연간 3만 7000톤을 생산, 세종 음극재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 흑연도 생산하고 있다. 원료는 포스코 제철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쿨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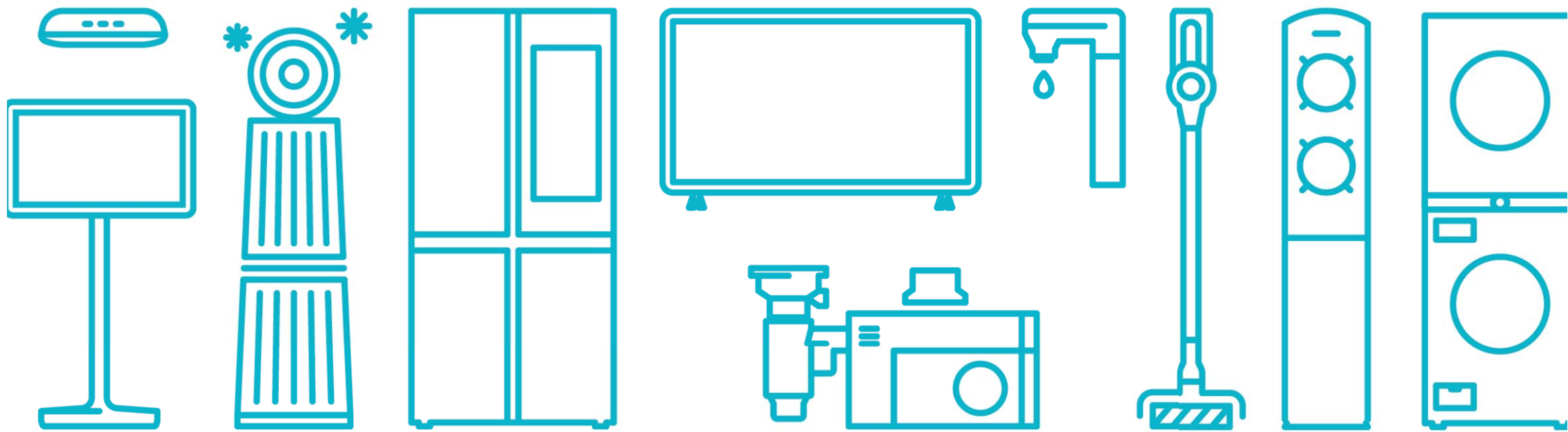
글로벌 2차전지 업계의 ‘탈중국’ 기

조가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부진을 겪어온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사업도 반등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비중국 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세계 음극재 출하량 1~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며 합산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으나, 포스코퓨처엠은 11위(약 1.3%)를 기록하며 공급망 전환 흐름 속 비중국 공급사로서의 입지가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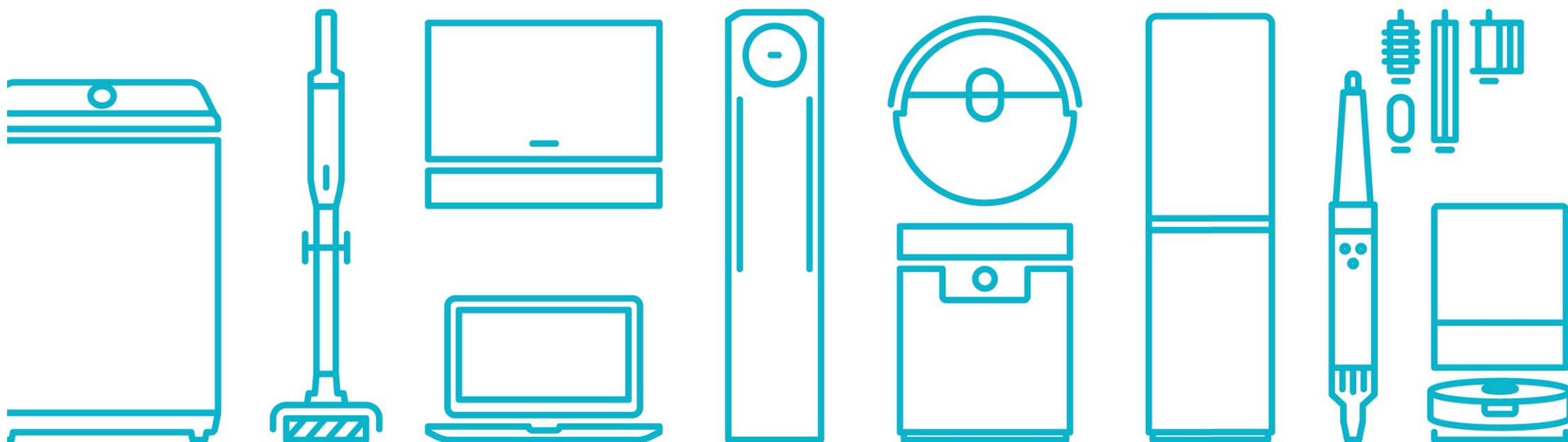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통신3사 CEO 국감 줄소환… 해킹·보안체계 전면 점검

내일 과방위 국정감사

보안 적정성·대응체계 허점 점검
사고 경위·방지책 집중 추궁 예고
요금 독과점 등 민생 이슈도 주목

오는 21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참석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보안'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과 공공 전산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민간·공공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는 오는 21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보안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신3사 수장들이다.

SK텔레콤은 4월 23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KT는 8월 초소형기지국(웹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역시 내부 서버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유출의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혹이 제기돼 진화에 나섰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난 13~14일 진행된 초기 국감은 기대에 비해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통령 의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감사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부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킹 질의는 배달의민족·롯데카드 등 다른 기업 현안에 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통신3사 CEO 동시 출석 국감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통신요금·시장 독과점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병행해 다룰 계획이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 영역에서는 통신비가 집중 질의 될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10년 전에 비해 20% 올랐고, 국민 부담이 크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고가요금제 폐지 이후에도 가입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지적했다.

한편 KT 사장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외에도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광고 알고리즘, 기업 메시지 상품 정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로밍 가입 빨라진다 챗봇에 LLM 도입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로밍 챗봇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로밍 가입 절차가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약 60% 단축됐다.

기존 규칙 기반(룰베이스) 챗봇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 질문 버튼을 단계별로 선택해야 해 답변 정확도는 높지만 절차가 길고 응답 유연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로밍 상품 가입 시 국가와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LLM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U+ 로밍 AI 챗봇'은 자연어 대화를 인식해 고객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낭 갈 건데 로밍 어떻게 해?"와 같이 입력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국가·기간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가입 절차를 안내한다. 고객이 요금제와 시작 시간을 선택한 뒤 가입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로밍 챗봇을 통한 가입 시간은 평균 1분 이내로 줄었으며, 해외 이용 중에도 시차에 상관없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선 이후 챗봇의 순고객추천지수(NPS)는 5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번 시스템에는 LLM의 응답 품질을 자체 평가·보완하는 '셀프 레그(Self-RAG·자기반성 검색증강생성)' 기술이 적용됐다.

/김서현 기자

MCP 기반 AI 에이전트… 사람-기계 협업 경계 허물다

업무 자동화 넘어 협업 구조 혁신 IITP "균형 잡힌 운용전략이 관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의 결합이 소프트웨어(SW)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를 혁신하며 조직의 디지털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CP 기반 AI 에이전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기술과 인적 자원 사이 균형 잡힌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공개한 'AI 에이전트와 MCP' 보고서에 따르면, MCP와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솔루션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MCP는 AI 에이전트와 외부 서비스, 데이터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 단순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유지 보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킨다. AI를 위한 '공통 언어' 역할을 하며, AI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AI 챗봇이 구글 드라이브, 업무 협업 톨 슬랙, 디지털 문서 도구 노션 등과 연동하려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별도로 구현해야 해 시스템이 커질수록 복잡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늘었다. 반면 MCP를 적용하면 각 AI 모델은 MCP 클라이언트만, 외부 시스템은 MCP 서버만 구성하면 돼 한 번의 통합으로 모든 연결이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코딩 에이전트와 MCP의 결합은 단계별로 분리돼 수행되던 복잡한 SW 개발 과정을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묶어내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최근 많은 기업과 개인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관리, 빌드·배포, 테스트 등 주요 개발 워크플로우

(작업 흐름)를 효율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SW 솔루션 기업 에스-코어는 MCP와 제마나이 2.5 프로를 코딩 에이전트 클라인과 결합해 그래픽 디자인 도구 피그마의 사용자 환경(UI) 시안을 개발 코드로 변환하는 워크 플로우를 구현했다.

이전에는 디자이너가 피그마에서 UI를 설계하고 개발자가 이를 해석해 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지만, MCP가 디자인 메타데이터(속성 정보)를 표준화해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서 디자인과 개발 사이의 연계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고객 프로젝트에서 개발 기간 단축과 품질 제고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 블록이 개발한 오픈 소스 AI 에이전트 구스는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을 받아 대화형 세션을 구축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MCP 서버를 통해 응답과 개선을 반복하며 코드

생성·분석·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구스 적용으로 블록에서는 비개발자도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신규 프로젝트에서도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과 코드 분석 속도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MCP 표준 생태계는 AI 에이전트 기술의 개방성과 보편화를 촉진한다"면서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운영자 등 비개발 인력도 자신에게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성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조직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MCP 기반 AI 에이전트 도입에는 전략적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며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업무는 AI 에이전트에 맡기되, 창의적인 설계와 복잡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SKT, 국제사회와 책임있는 AI 논의 확대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과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차호범 SKT CPO는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를 방문한 팀 앵겔하르트 유엔 인권담당관 등에게 지난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내부 'AI 거버넌스 포털'을 중심으로 SKT의 AI

윤리·책임 체계를 설명했다.

'T.H.E. AI'는 ▲통신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의 복지 증진(for Humanity) ▲윤리적 가치와 투명성(with Ethics)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KT가 자체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AI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 및 활용 방안을 기업과 논의



AI 거버넌스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SK텔레콤 차호범 CPO(좌측)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팀 앵겔하르트(Tim Engelhardt) 인권담당관. /SKT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T는 'T.H.E. AI' 원칙을 바탕으로 AI 행동규범을 수립해 사규에 반영

하고, 전 구성원이 실천 서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거버넌스 정착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정재현 CGO 직속으로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스페인 'MWC 2025' 행사에서 GSMA·도이치텔레콤 등 해외 기관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SKT의 'AI 거버넌스 포털'은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단계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평가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돼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의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APEC정상회의 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합 교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 총 12대의 4인승 순환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해당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경주시 내 '제2동공원'과 '엑스포공원' 두 개의 순환 노선을 달린다.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차량 대여비와 기사 숙박비 등 제반 비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액 부담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주시 일대 권역의 지·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한 교통 안내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자율2부제 시행 및 도로 혼잡 사전 예고 ▲실시간 도로 우회 교통 정보 제공으로 통행량 분산 ▲보문관광단지 방문 차량 주차장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반도체 질주에 코스피 3700 돌파… 13만전자·56만닉스 눈앞

〈KB증권 삼성 목표가 13만원〉

〈한국투자 SK 목표가 56만원〉

업계, 반도체 상승국면 시작 전망
올해 삼성 주가 84%, SK 167% ↑
시총은 각각 570조, 330조 넘어가
KB·NH 등 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뜻이 ‘삼만전자(삼성전자 3만원)’에서 이룬 것과 같이 ‘십만전자’도 이루어지리라.”

“와 삼전이 9.6만원!!! 10만전자도 거뜬하겠는데요.”

“용광로를 보는 것 같네요. 구조대 오면 바로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구조대가 오니 ‘좀 더 버텨볼까’ 이라고 있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10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드디어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통했다”는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다. ‘삼기도문’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염원을 담아 주기도문을 패러디해 투자자들이 쓰는 말이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반도체의 힘으로 3700 돌파에 성공했다. 반도체 주가가 치솟자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지금 팔지, 더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어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예고되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이 되자 기뻐하는 투자자들.

이제 시작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84.02%,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67.68%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기준 시가총액 570조원(우선주 제외), SK하이닉스는 시총 330조원을 넘겼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질주는 글로벌 AI 투자 광풍의 영향이다. 추석 황금연휴 휴장기간 동안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신고가(192.57달러)를 경신하며 시총이 4조6794억 달러(약 6651조원)까지 성장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이 아랍에미리트(UA

E)에 대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하며 AI 투자 전쟁에 중동의 큰손도 참전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도 급등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AMD로부터 AI 반도체를 공급받는 등의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다.

막대한 AI 투자가 이어지며 HBM 등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플래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진 점도 반도체 몸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 1일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의 D램 공급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능력의 약 75%로 추산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대규모 투자가 결합해 상승 국면이 예고된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8일 ‘메모리 부활(Resurg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각각 11만1000원, 48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모건스탠리가 ‘겨울이 곧 닥친다’(지난해 9월), ‘빙산이 온다’(올 4월)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를 경고해 ‘반도체 저수사자’로 불렸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다. 현재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KB증권은 ‘13만 전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는 14곳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11만1000원→12만7000원), 한국투자증권(9만5000원→12만원), NH투자증권(9만4000원→11만5000원), 키움증권(10만5000원→12만원), 하나증권(9만5000원→11만5000원)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56만 닉스’(SK하

이닉스)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은 처음으로 21조원을 돌파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다. 이들 종목의 총 가치는 올해 1월 2일 11조9099억원에서 출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4일 14조2852억원으로 상승한 뒤, 16일 기준 21조5836억원을 찍었다. 삼성전자 덕분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4일 5조6305억원에서 9조5173억원으로 69% 급등했다.

다만 글로벌 AI 랠리에도 ‘거품론’이 제기되는 상황은 부담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려한다”며 “AI는 진짜이며 총량적으로 보면 성과를 내겠지만 모든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영국 은행(BOE)도 증시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반도체로의 몰림 현상과 높은 환율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기업금융·혁신투자 중심 체질개선

금융위,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출범
NH투자 “모험자본, 본질 살려야”
미래에셋 “투자중심 금융 전환”
한국투자 “발행어음 토대 IMA 도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하자, 증권사들도 부동산 중심의 단기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과 혁신 투자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세제·회계·건전성 규제 등 금융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생산적 금융을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 의제로 구체화한 첫 공식 회의로, 이후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분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의 기조변화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반성’과 ‘전환’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PF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기업금융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모험자본 투자라는 금융의 본질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H투자증권의 IB 부문 수익 중 PF가 40%를 웃돌았고, 모험자본 비중은 총 자산의 2%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산업을 키우는 금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역시 ‘대출 중심의 금융’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금융기관이 대출로 돈을 버는 구조는 잘못됐다. (나도) 반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생산적 금융 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며, 미래에셋도 투자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증권·보험을 아우르는 미래에셋의 구조적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간 신사업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대 대형사는 최근 금융위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신청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운용 경험을 토대로 IMA에 도전 중이며, 미래에

셋증권은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은행계 증권사로서의 자본 안정성을 앞세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인가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민간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도 입법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여야가 정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형 성장펀드를 운용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 역시 혁신기업 성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IMA와 BDC가 함께 작동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생태계가 한층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DC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회수 시장(엑시트) 활성화와 운용사 전문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정윤 기자

금 ETF 7종 한달 수익률 20% 상승

‘ACE KRX금현물’ 29% 상승률 1위

금값이 치솟자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균 수익률도 최근 한 달간에 만 20%를 넘어섰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 관련 ETF로 분류되는 상품 7종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이 20.6%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ACE KRX금현물’로 29.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간발의 차이로 ‘TIGER KRX금현물’가 28.9%로 그다음을 이었다.

‘SOL 국제금’(18.0%)과 ‘KODEX 금액티브’(17.7%) 등도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다.

금 ETF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지만 개미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최근 한 주간(지난 13~17일) 개인 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을 1290억원어치 사들였다. 순매수 3위다.

이 외에도 ‘TIGER KRX금현물’(5위·990억원), ‘KODEX 금액티브’(6위·970억원) 등 10위권 내 금 관련 ETF 상품이 3개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2000 달러 수준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4318.75달러)를 또다시 새로 쓴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투증권, 퇴직연금 ETF 10개월간 1.6조 ↑

DC·IRP 계좌 적립금 11.5조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금액이 약 10개월 동안 1조6359억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말 8조4000억원이던 DC·IRP 계좌 적립금은 이달 1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TF 투자금액은 1조7486억원에서 3조3845억원으로 약 2배(93.6%) 증가했으며, 계좌 내 ETF 비중도 20.8%에서 29.4%로 8.6%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ETF 직접투자 확산은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주요국 대표지수

및 성장 테마형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50대 가입자층이 ETF 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미국 S&P500·나스닥100 등 대표 지수형 ETF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AI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점도 ETF 잔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서는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졌다. 중국 및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늘었고, 차이나 테크·AI·휴머노이드 ETF뿐 아니라 국내 조선·방산·반도체 섹터 ETF의 잔고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WTO 기술규제 3304건 역대 최고치

韓 수출기업, 비용증가 등 부담 가중

산업부, 전년 동기비 4.0% 증가
미·EU·중 등 주요국 규제 강화
인도, 내년 미인증 기계류 제한
정부, 규제완화 협의·지원 추진

글로벌 기술규제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가 새롭게 도입한 기계류 안전인증제도(Scheme X)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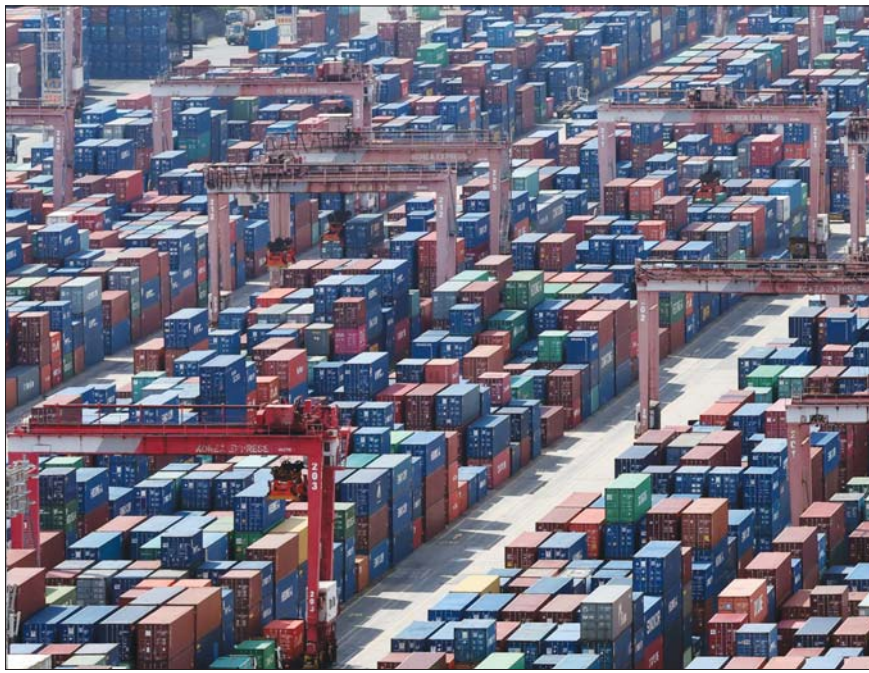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통보 건수도 11.2%(520건→578건) 늘어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뒤범퍼·연료탱크) 및 가전제품(세탁기·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전년(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국가별 철도안전기준을 통합안으로 일원화하는 등 83건(전년 대비 10.7% ↑)의 규제를 신설·변경했다.

중국의 경우 생활용품과 소방설비(감지기·소화기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며 167건(전년 대비 16.8% ↑)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규정) 명령’ (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압축기·절삭기 등 기계류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공작기계류 대 인도 수출은 2022년 1억5900만달러에서 2024년 2억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6%에서 8.1%로 높아진 상태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서류심사→공장심사→인증획득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공장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공장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의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세

부 메뉴얼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애로사항은 무역기술장벽(TBT) 포털 knowtbt.kr을 통해 접수 중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농기자재, 중동 수출 교두보 세운다

농식품부, 사우디 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중동시장 판로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0~23일 나흘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5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박람회(Saudi Agriculture 2025)’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친환경농기자재, 농기계, 비료, 농약 등 K-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총 14개사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친환경농기자재 6개사-천지바이오, 고려바이오, 새턴바이오텍, 케이에스씨, 웨어그린 ▲농기계 2개사-위캔글로벌, 헬퍼로보틱 ▲비료 2개사-코트그린 농업회사법인, 효성오앤비 ▲시설자재 3개사-대양, 리츠, 이시시 ▲농약 1개사-한얼사이언스 등이다.

이번 박람회는 중동 등 세계 농업 기술, 기자재, 식품가공 및 축산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이다. 세계 29개국에서

37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 2만7000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시장 규모는 2025년 181억 달러에서 2030년 257억 달러까지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료와 농약, 친환경 농자재·시설자재 등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막기후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많아,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가 높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공동홍보관 운영과 함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업해 바이어 발굴도 추진한다. 또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1:1 수출상담을 진행해 MOU 체결, 구매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 개최 첫날인 20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진)와 함께 ‘2025 사우디아라비아 K-스마트팜 로드쇼’도 개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와 스마트팜의 수출 및 교류·교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농작업 대행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지원

농협중앙회가 ‘농작업 대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종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벼 수확 시연회’가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벼 수확 ▲경운 ▲방제 등의 농작업이 시연됐고 스마트농기계와 농자재(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이 전시됐다.

농협은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직영 농작업 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직영 농작업대행 확대 ▲작기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농업 현장 스마트화 가속 등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 회장은 “농심전심 정신으로 농업인을 최우선에 두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며 “직영 농작업대행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세종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벼 수확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

다”며 “직영 농작업대행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 회장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관내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222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145만 헥타르(ha)의 직영 농작업대행과 39만ha의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헬스장·요가 ‘환불 불가’ 약관 사라진다

공정위, 환불 제한 약관 집중 점검
터닝포인트짐 등 체인형 시설 시정
환불 불가·과도한 공제 전면 삭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들이 회원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던 불공정 약관을 대거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수 발생한 터닝포인트짐, 엠휘트니스9, 바디스,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24GYM 등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체인형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해지 불가” 등 환불 자체를 금지한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또 “1일만 이용해도 1개월로 간

주”, “카드 결제 시 위약금 외 카드수수료 4% 추가 부담” 등 과도한 공제 조항도 있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헬스·필라테스 등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체육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진 삭제하거나 일할 공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은 “운동 중 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은 전적으로 회원 책임”이라고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점유자·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사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공정위는 또 해지 접수를 “토·일요일

13시~17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분쟁 시 “센터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먼 지역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삭제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명확해져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 해약 시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 수준이며, 시설별로 헬스장(체력단련장) 34.8%, 요가·필라테스·태보 연습장 17.5%, 골프연습장 12.3% 순으로 많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남, 베트남에 AI 감사기법 전파

KOICA 초청 베트남 연수단 방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베트남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감사기법과 청렴경영 사례를 전파했다. 한남은 지난 17일 성남 본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공공감사 연수단’을 맞아 AI 감사사례, 감사기구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등 감사운영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베트남 국가감사원(State Audit Office of Vietnam)과 정부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KOICA ODA사업 ‘베트남 감사역

량강화(2023~2025)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남은 이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 감사혁신’ 사례를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다.

김좌열 한남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며 “AI 시대에는 데이터 기반 감사 기법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공공감사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한남은 감사원 등 대외평가에서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청렴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인 1700명 ‘APEC CEO 서밋’ 집결

〈엔비디아 CEO〉

오는 28일부터 ‘APEC CEO 서밋’ 지역경제통합·AI 등 과제 논의 AWS, APAC, 메타, MS 등도 참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기업인들이 오는 28일 경주에 총집결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한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폐막식에서 의장 인수봉을 전달받은 뒤, 올해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를 이끌어왔다.

최 회장은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 개회사를 비롯해 31일 폐회사와 의장 인수인계식까지 행사 전반을 총괄 지휘한다.

이번 서밋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3B)’로 ▲지역경제통합 ▲AI·디지털 전환 ▲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시대적 과제가 논의된다.

글로벌 테크 리더들도 대거 경주를 찾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올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CEO, 이홍락 LG AI연구원장 등 국내 주요 테

크 리더들이 함께 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 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켄 회장, 쟁위원 CATL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등이 참석한다.

또한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테라파워(미국)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 월드뱅크·AIIB·ADB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CEO 서밋은 기존 2박3일에서 3박4일 일정으로 확대된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19시간 이상 집중 논의를 진행한다.

CEO 서밋의 차별화 포인트는 정상과 글로벌 CEO 간의 직접 소통이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한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APEC의 경제효과는 약 7조 4000억원, 고용 창출은 2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며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북도

봉화~울진 잇는 ‘동서트레일’

경북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인 ‘동서트레일(East-West Trail of Korea)’의 경북 구간이 뚫렸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849km(55개 구간)의 장거리 숲길로, 백패킹 문화를 기반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트레일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총 17개 구간, 244km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북 구간은 봉화군과 울진군을 지나는 47~55구간(9개 구간, 138km)이 포함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광주시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 지원

광주시가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광역시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사업’ 대상업체 3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다양한 세부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오는 12월까지 산업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미래차 사업 재편, 공급망 이에스지(ESG) 대응, 연구개발(R&D) 기획 등 9개 분야로 맞춤 설계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시

오는 23일부터 ‘부산자갈치축제’

부산 중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유라리광장 일원에서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를 연다.

축제는 23일 오후 7시 남항에서 열리는 해상 불꽃쇼로 막이 오른다. 이어 미스트롯 우승자 정서주, 미스터트롯 가수 나태주 등 초청 가수 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자갈치 용신제 ▲장어 이어달리기 ▲황금물고기를 찾아라 ▲수산물 무료 시식회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4개 추진

신농업 혁신타운 기능 강화하고
창농·귀촌 활성화 통한 인구유입
첨단 농산업 기반 조성 기여 기대

경주시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예산 집행이 이어지며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총 4건의 기초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2023년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팍하우스 조성 ▲2024년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2025년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2025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등으로, 이들 사업은 주요 행정절차를 대부분 완료하고 공정을 및 집행을 제고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팍하우스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주거·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은 성건동 167-11번지 일원에 외국인과 지역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기금 16억, 시비 16억)이 투입된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 내(1288·1289번지)에 스마트농업 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신농업 혁신타운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첨단 농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형 행사로, 풍기인삼의 명성과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영주시, 지역 특산물·문화 행사 막 올라

‘풍기인삼·농특산물대축제’ 열려

영주시가 깊어가는 가을, 지역의 대표 특산물과 문화를 한데 아우른 대규모 축제를 열었다. ‘풍기인삼’의 역사와 정체성, 영주 농산물의 품격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역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5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2025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18

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영주시 풍기읍 일원과 부석사 잔디광장 등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형 행사로, 풍기인삼의 명성과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두 축제를 연계해 같은 공간에서 진행함으로써 행사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전남도, 올해 공공비축미 19만t 매입

전년비 26.4% 늘어… 역대최고 물량

전남도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19만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매입계획량은 일반벼 10만1000t, 친환경벼 2만9000t, 산물벼 3만1000t, 가루쌀 2만9000t이다.

이는 전국 매입량 62만5000t의 3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물량이다.

연도별 매입량을 살펴보면 2021년 12만3000t, 2022년 15만3000t, 2023년

14만1000t, 2024년 15만1000t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30일까지이다. 농가편의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한다. 포대벼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매입한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 대상은 시군별 2개 이내 품종으로 지정한다. 지정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디젤 화물차 생산 중단’에 농민 불편 ↑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LPG·전기차 모델만 판매

디젤 1t 화물차 생산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남 농민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LPG와 전기 화물차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출력이 낮아 농업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1t 화물차 봉고3는 LPG와 전기차 모델만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 포터 역시 2023년 11월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

농산물 수확을 위해 밭에 진입하거나 언덕길을 오가는 일이 많아 대부분 사륜구동 차량을 쓴다. LPG 모델에도 사륜구동이 있지만 기어변속이 예민하고 밭길 주행 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제약이 크다. 봉고3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17km지만 겨울철 히터를 켜거나 무거운 짐을 실으면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줄어든다. LPG나 전기차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는 큰 이점이 되지 않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한우 50%, 아우터 80% 특가 진행 유통업계, 가을맞이 대규모 할인전

블랙프라이데이 전초전

신세계 30일부터 11일간 ‘쓱데이’
18개 계열사 참여 2조 물량 준비
쿠팡 26일까지 ‘세일 페스타’
탐텐 연중 최대할인 ‘텐텐데이’

유통업계가 가을을 맞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전초전 격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일제히 펼치며 4분기 소비 심리 공략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쓱데이’를 예고한 가운데, 쿠팡과 SSG닷컴, 신성통상 탐텐 등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가을 쇼핑 대전에 참전했다.

올해 6회차를 맞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역대 가장 기간, 2조원 이상의 최대 물량으로 열린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G마켓 등 18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며, 마법 같은 힐링을 주제로 다양한 상품과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

특히 그룹 시너지를 집약한 쓱데이 시그니처 Top 20 상품이 주목된다. 이마트는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G마켓과 옥션은 로보락 로봇청소기, 에버랜드 종일권 등을 단독 특가로 선보인다.

신세계까사는 인기 소파 캄포시리즈

를 최대 50% 할인하며,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시즌 굿즈 25종을, 신세계푸드는 NBB 골든 카츠 버거 등 쓱데이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 ‘신세계 창고 대방출의 날’이라는 키워드 아래 파격적인 클리어런스 세일도 진행한다. 이마트는 아이폰15를 3000대 한정으로 30% 할인하며, 이마트24는 스마트TV를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쿠팡은 이달 26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를 연다. 가전·디지털, 홈인테리어, 패션·뷰티 등 15개 카테고리에서 1000여 개 브랜드의 6만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집단장템, 훈수필수템, 가을먹거리 등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관을 운영하며, 해피콜 티타늄 IH 공중팬, 파로마트리니 무빙 리클라이너 소파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SSG닷컴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패션·명품 쓱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간대별로 혜택을 달리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는 타임딜에서는 아미 맨투맨, 구찌 울 머플러, 어그 클래식 미니 부츠 등을 한정으로 선보인다.

자정부터 하루 동안 진행되는 원데이딜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다운재킷, 아디다스 운동화 등을 내세운

다. 오후 8시 쓱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얼리, 명품 특가전이 이어진다. 이 외에도 EnC의 아우터를 최대 80%,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겨울 상품은 최대 50% 할인한다.

신성통상의 SPA 브랜드 탐텐은 이달 17일부터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텐텐데이’를 시작했다. 10월=텐텐데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에서는 신제품부터 베스트셀러까지 1+1 혜택과 최대 80% 릴레이 특가를 적용한다. 특히 에어테크 경량 패딩, 발열 내의 온어어, 프리미엄 메리노 라인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온어어는 흡습발열 기술을 적용했으며, 가을용 라이트웜부터 혹한 기용 익스트림웜까지 네 가지 라인업으로 세분화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대대적인 행사는 3분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4분기 소비 심리 선점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02로,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서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어진 4분기 전망지수는 87로 다시 하락하며 연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를 본격 확대해 국내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백화점

“AI가 고객취향 따라 매장·맛집 추천”

현대백,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내국인 대상 확대·정식으로 론칭

현대백화점이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를 내국인 대상으로 정식 론칭하며 서비스 본격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헤이디’는 생성형 AI가 최적의 오프라인 쇼핑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7월 외국인 전용으로 먼저 선보인 지 3개월 만이다.

‘헤이디’는 현대백화점과 아울렛의 실시간 운영 정보를 활용해 고객 취향에 따라 매장, 식당, 팝업스토어 등을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다. 외부에 공개된 정보만 활용하는 일반 생성형 AI와 달리,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안

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월평균 이용 건수는 9000건을 기록했으며 ‘선물’, ‘팝업’, ‘식당’ 등의 키워드 검색이 많았다. 현대백화점은 이러한 반응을 바탕으로 내외국인 통합 버전의 주요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으며, 특히 선물 추천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통합 버전에서는 고객의 선물 목적과 가격대, 받는 사람의 취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천 상품과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또한, 헤이디가 추천한 브랜드 상품을 ‘더현대닷컴’에서 즉시 주문할 수 있는 O4O(Online for Offline) 기능도 마련해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구매의 편의성을 연결했다.

/손종욱 기자

GS25, 건강기능식품 누적판매량 80만개

전국 5000여개 매장에서 30여종 판매

편의점 GS25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누적 판매량이 80만개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GS25는 근거리 구매 편의성과 소용량·가성비 상품이 ‘건기식 입문자’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GS25는 지난 8월부터 5000원 이하 소용량 건기식 상품군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전국 5000여개 매장에서 30여종의 상품을 운영 중이며, 이중 500여곳은 ‘건기식 특화 매장’으로 꾸며졌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달 말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이 전 연령대에서 고른 소비를 보이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품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020 세대는 단백질 셰이크 등 ‘이너뷰티’ 상품을, 3040 세대는 밀크씨슬 등 ‘피로 개선’ 상품을, 5060 세대는 루테인 등 ‘저속 노화’ 관련 상품을 주로 구매했다.

퀵커머스를 통한 건기식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확인됐다. GS25 측 자료에 따르면 GS25의 퀵커머스 앱 ‘우리동네GS’에서 건기식 출시 후 건강 관련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급증했으며, 특화 매장의 경우 2.5배나 뛰었다.

/손종욱 기자



롯데백화점의 러닝행사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롯데백화점

롯데백-마케팅 ‘스타일런’ 6000명 달렸다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 성황
2017년부터 8년 누적 4만여명 참가

롯데백화점이 송파구청과 공동 주최한 러닝 축제 ‘2025 스타일런 with 송파구’를 이달 19일 6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잠실롯데월드몰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K-패션 브랜드 ‘마케팅’과의 대규모 협업과 함께, 단순 러닝 이벤트를 넘어 ‘프리미엄 러닝 컬처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진행됐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스타일런을 단기성 행사를 넘어 러닝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리브랜딩했다. 이는 러닝이 전 세대를 아

우르는 일상 스포츠로 자리 잡은 트렌드에 발맞춘 것으로, 2017년부터 누적 4만명이 참가한 대표 시그니처 행사를 독보적인 ‘러닝 컬처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스타일런은 글로벌 K-패션 대표 브랜드 ‘마케팅’과 대규모 협업을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6000명의 참가자에게 제공된 ‘컬래버레이션 러닝 키트’는 볼캡, 기능성 티셔츠, 타월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활용해 개성 넘치는 ‘러닝코어룩’을 선보이며 축제를 즐겼다.

러닝이 끝난 후에도 롯데월드몰 잔디광장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케팅’ 브랜드 부스를 비롯해 ‘엔제리너스’, ‘롯데호텔’,

스포츠 세탁세제 ‘런드리 서핑’ 등 10여개 협찬사가 운영하는 다채로운 브랜드 부스를 체험했다. 또한 자신의 러닝 기록이 표시된 모니터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장혜빈 시그니처이벤트 팀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스타일런이 안전 사고 없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으며,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스타일 리시한 러너들의 일상’을 제안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는 독보적이고 트렌디한 러닝 문화를 지속적으로 기획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크라운해태제과, 22년째 국악후원 나서

누적 후원액 1000억 넘어서

크라운해태제과가 22년째 이어온 국악 후원 활동으로 전통음악 발전과 고객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한 문화 후원을 넘어 ‘국악으로 고객 행복을 만든다’는 예술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이를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2004년 시작된 국내 최대 민간 국악 공연 ‘창신제’는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

은 ‘수제전’을 주제로, 전통음악의 원형을 지키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무대로 구성됐다.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 10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대합창을 선보이는 등 기업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크라운해태제과의 국악 후원 규모는 지난 22년간 총 1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개최 및 후원한 국악 공연은 2000여회, 누적 관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국악 관현악단과 청년 연희단을 운영하며 명인·명장뿐 아니라 차세대 국악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예방·진단 중심’ 정밀의료 시장 선점 본격화

K-제약·바이오, 예방의료 수출 일본·중동 등 해외 공략 본격화 AI·액체생검 기술 경쟁 심화 혈액 기반 다중암 진단 확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예방·진단 중심의 정밀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액체생검 및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 GC지놈은 올해 들어 일본, 중동 등에서 전략적 요충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GC지놈은 지난 4월부터 일본 소재 GC그룹 계열사 GC림포텍을 통해 다중암 조기 진단검사 ‘아이캔서치’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로 대장암, 폐암, 간암, 췌장담도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암을 동시에 선별하는 기능을 갖췄다. GC지놈이 독자 구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탐색하고 기존 건강검진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암 신호를 포착해 낸다.

이와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최근에도 일본 의료진과 후속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경쟁력을 높였다. 이달 16~18일(현지 시간) 일본에서 열린 ‘제63회 임상종양학회 연례 회의’의 경우, 약 7000명의 일본 항암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 참여



지난 16~18일 일본에서 열린 ‘제63회 임상종양학회 연례 회의’ 현장에서 GC지놈과 GS림포텍이 공동 운영한 부스 전경. /GC지놈

해 기업 부스를 운영하기도 한 GC지놈은 최신 기술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캔서치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중동에서는 진단검사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한다.

바레인의 바이오랩,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드밴스드 셀 래버러토리, 젠에라이브 등 주요 기관들과 협력해 아이캔서치 수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유전체 사업 등 고도화된 차세대 바이오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아랍에미리트 소재 의료기기 유통업체 풀베르트 메디컬 엘엘씨와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지니프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

GC지놈은 이러한 해외 거점을 성장 발

판으로 매출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 첫 해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 반등세를 기록했다.

GC지놈은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146억원, 영업이익 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을 올렸다.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영업이익 13억원, 당기순손실 10억원에서 흑전 전환했다.

액체생검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는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신약개발까지 폭넓게 적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동력을 차별화한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유한양행의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자회사 이문온시아와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혈액 내 순환하고 있는 종양 DNA(ctDNA)를 분석하는 플랫폼 ‘알파리퀴드’를 이문온시아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접목한다.

알파리퀴드에는 혈액 20ml에서 0.1% 수준의 ctDNA 또는 10개 분자까지 검출 가능한 고감도 기술력이 집약됐다. 첨단 액체생검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신약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 제품인 다중암 조기 진단검사 ‘캔서파인드’도 지속 재단장한다. 이달 내놓은 캔서파인드 업그레이드 버전은 기존 8종에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신장암, 방광암 4종을 새로 포함해 최대 12종 암을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확인하게 됐다. 향후 캔서파인드의 대상 암종을 30개까지 늘려 한국인 발병 암의 98% 이상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전국 상급병원을 포함해 103개의 의료기관과 검진센터로 캔서파인드를 공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1%에서 2024년 38%로 커졌다. 상장 첫 해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 34억원에서 해외 매출은 13억원에 달했다.

한편 분자진단 전문 기업 HLB파나진은 파키스탄 등 신흥 지역으로 진출한다.

이번에 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총 8종으로 폐암, 대장암 진단에 쓰이는 KRAS, BRAF, EGFR, 뇌종양 IDH1 및 IDH2, 유방암 PIK3CA, 유두 갑상선암 TERT 등이다. HLB파나진의 독자 기술로 주요 암 종의 치료 결정에 핵심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HLB그룹 편입 이후 바이오스퀘어 인수 등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결과, 그 성과가 매출 및 영업이익의 뚜렷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파키스탄에서 고성장에 나갔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제 성장률은 2024년 2.4%로 나타났고 올해는 3.5% 수준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파키스탄 제약산업은 2024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22% 성장한 33억 달러 규모로 평가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APEC에 ‘올림워터’ 협찬

울릉도 천연수로 K-워터 알리

LG생활건강이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워터 올림워터’ 9만 6000병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올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서 올림워터를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21개 참가국의 글로벌 인사들에게 K푸드의 남다른 풍미와 진수를 알릴 계획이다.

올림워터는 울릉도 최초 고급 먹는샘물로 특별한 원수(原水)를 담았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친 후 화산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되어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로 만들어 차별화된 제품력을 갖췄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APEC에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취수한 올림워터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개최지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K워터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콜라겐·비타민C로 홈케어

분말형 스킨케어 2종 선보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분말형 스킨케어 신제품 ‘마데카 분말 콜라겐 업’과 ‘마데카 분말 비타글루 씨’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2종은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을 통해 피부 온도와 손끝 압력 만으로도 부드럽게 녹는 신개념 오토멜팅 캡슐 분말 제형을 갖췄다.

‘마데카 분말 콜라겐 업’은 핵심 성분은 하이퍼-테카콜라겐이다. 농축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알란토인 등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진 부위를 관리할 수 있다.

‘마데카 분말 비타글루 씨’는 순수 비타민C까지 더해진 하이퍼-테카비타민을 함유해 피부 톤, 잡티, 기미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준다.

두 제품 모두 오는 31일까지 무신사에서 단독 공개된다. 마데카 분말을 고민 부위에 바로 녹여 사용하거나, 도구를 활용해 전용 겔 세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데카 겔 세럼 하얏론 듀(15ml), 믹싱팔레트, 스킨롤라가 구성된 특별 기획세트도 선보여진다.

/이청하 기자



센텔리안24 신제품 ‘마데카 분말 콜라겐 업’(왼쪽)과 ‘마데카 분말 비타글루 씨’(오른쪽). /동국제약

스타벅스, 패션 플랫폼으로 MZ 공략 나섰다

W컨셉·무신사와 협업 강화 생활소품·테이블웨어 확대

스타벅스 코리아가 패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2030세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커피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패션 플랫폼 W컨셉에 ‘스타벅스 전문관’을 열고 키체인, 토트백 등 패션 소품을 포함한 라이프스

타일 상품을 선보였다. 이어 이달에는 신규 테이블웨어 라인 ‘스태카(STACK A) 시리즈’를 W컨셉 단독으로 선공개했다. 심플한 디자인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머그볼·플레이트·유리잔 등 5종을 비롯해 선물용 세트 상품도 함께 출시됐다.

W컨셉은 21일까지 스태카 시리즈 론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매 고객에게 음료 쿠폰과 호텔스타벅스 타월 세트를 증정하며, 누적 구매금액 상위 고

객에게는 호텔스타벅스 킴포트 세트를 제공한다. 스태카 시리즈는 오는 20일부터 스태벅스 앱,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키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스태벅스는 무신사와 협업해 ‘스포츠 컬렉션’을 단독 론칭했다. 무신사의 한정 판매 채널 ‘무신사 드롭’을 통해 러닝·헬스 등 액티비티에 어울리는 워터보틀, 파우치, 스포츠 타월 등을 선보였다. 단독 론칭을 기념해 대화용컵 이용 고객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



무신사 스포티 컬렉션. /스타벅스 코리아

고, 선착순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스태벅스 한지민 커머스마케팅 파트장은 “패션 플랫폼과의 협업은 커피를 넘어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한양행 ‘알마젤’, 베트남 수출 100억 돌파

40년 장수 제산제 글로벌 성장

유한양행이 제산제인 ‘알마젤’의 베트남 수출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알마젤의 국내 정식 명칭은 ‘알마겔현탁액’이며 베트남 현지 제품명은 ‘유만겔현탁액’이다.

1984년 8월에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알마젤은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짜먹는 약으로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주성분인 ‘알마게이트’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인정받은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2008년 처음으로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알마젤은 2024년 한 해에 수출액 기준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유한양행의 해외사업은 크게 원료의약품에 기반한 CDMO사업과 완제의약품 수출사업으로 구분된다. 2024년 3,0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만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배스킨라빈스 “말차에 딸기 더했다”

‘핑크 베리 말차’ 신제품 출시

SPC 배스킨라빈스가 깊고 진한 말차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핑크 베리 말차’ 플레이버를 출시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핑크 베리 말차’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말차’를 활용했으며,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를 반영해 말차와 딸기를 조합했다. 제주 유기농 말차 아이스크림에 딸기 아이스크림, 과육, 리본(아이스크림에 넣는 시럽의 일종)을 더해 핑크와 그린 컬러의 조

화로운 비주얼과 달콤 씹싸름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핑크 베리 말차’를 활용한 케이크·음료도 선보인다. 말차 라떼 아트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진한 말차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더한 ‘핑크 베리 말차 케이크’, 씹싸름한 말차와 상큼한 딸기의 맛과 조화로운 컬러 레이어링이 매력적인 ‘핑크 베리 말차 셰이크’ 등이다.

진한 말차와 리치한 마스카포네 치즈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진정한 말차 티라미수’ 등 진한 말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
강연	14:50~15: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15:20~15:5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15:50~16:20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롯데, 롯데월드 전체대관하고 임직원 가족 초청

롯데가 지난 17일 잠실 롯데월드 전체를 대관해 ‘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을 열고, 그룹 임직원과 가족 1만 5000명을 초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직원을 위해 롯데월드 전체를 대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



세븐일레븐, ‘모두하나대축제’서 한부모가족 지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난 18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모두하나대축제’에 참여해 한부모가족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행사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한부모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세븐일레븐



한미그룹, 창립 52주년 기념 ‘빅 하트 봉사주간’

한미그룹이 올해 창립 5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사회에서 ‘빅 하트 봉사주간’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한미그룹 법정 창립일은 1973년 6월 15일이지만 한미그룹은 첫 번째 제품 ‘TS산’을 출시한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공식 창립일로 정해 기념한다. ‘이번 봉사주간에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이 운영됐고 50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미그룹



유한재단, ‘제34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열어

유한재단은 지난 17일 서울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34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간호부문에서 수상한 (왼쪽부터)김지현 렉스과천치과 간호실장, 황관옥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감사,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민정숙 홍익병원 행정위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BNK경남은행-HD현대 ‘글로벌 상생 데이 행사’

BNK경남은행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상생 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BNK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및 사내협력사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BNK경남은행

구자열, 日 와세다대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LS그룹 이사회 의장)

민간 외교관으로 경제협력 이바지
고려대와 국제 교류 확대 기여도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LS그룹은 구자열 의장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아이즈야이치 기념박물관에서 열린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다나카 아이지 총장 등 와세다대 관계자와 김동원 총장, 승명호 교우회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LS그룹 임직원, 구 의장의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와세다대는 구 의장이 한국무역협회장과 세토포럼 이사 등 민간 외교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지난 18일 와세다대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관으로서 한일 경제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고, 제33대 고려대 교우회장, 발전위원장 등을 맡아 양교 간 국제 교류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명예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학위는 기업 경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탁월한 공로를 남긴 인물에게만 수여되는 특별한 명예다. 특히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인 고려대와 와세다대가 오랜 기간 자매결연 관계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만큼, 고려대 동문인 구 의장이 와세다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로 평가된다. 앞서 이 학위를 수여한 인물로는 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故 이건희 삼성전대회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등이 있다.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은 “구자열 의장은 LS그룹을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현지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 일본 정·재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 경제 협력 강화에 현저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답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은 양교의 신뢰와 교류를 상징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나아가 한일 양국의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 달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받은 학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인니에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
브카시 주민 대상 환경교육 등 수행

현대차,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브카시에서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생산공장이 위치한 브카시에 지난 2022년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개소하는

등 현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 대상 환경 교육, 굿즈 제작과 함께 폐플라스틱 수거, 세척·분쇄, 재생 원료 생산·판매 등을 수행한다. 지역주민협동조합이 시설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수익금은 자원순환시설에 재투입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지역주민협동조합 구성과 인력 채용, 운영 교육 등을 맡고 현지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 기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리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BGF리테일, 편의점 금융서비스 확대

나이스인프라와 ‘맞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나이스인프라와 ‘금융 특화 서비스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6일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 이현석 나이스인프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CU의 점포망과 나이스인프라의 금융기술력을 결합해 편의점의 생활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금융서비스 차별화 및 ATM 확대 ▲키오스크 등 무인 운영 서비스 확대 ▲보안 솔루션 연계 ▲공동 마케팅 협업 등이다. 양사는 5년 내 ATM 운영 대수를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향후카드나 통장을 발급할 수 있는 기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전용 선불카드 종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키오스크, 자판기 등 무인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왼쪽)과 나이스인프라 이현석 대표이사(오른쪽)가 MOU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GF리테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CCTV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 구축, 양사 앱을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오정후 전략혁신부문장은 “지근거리 소비 플랫폼인 편의점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밀착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BGF리테일은 앞으로도 오프라인 최다 점포 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별화 서비스들을 지속 개발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지난 18일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2025 어울림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다양한 가정과 연대감 나눠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 진행

애경산업이 지난 18일 경기 광명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서 ‘제2회 어울림 체육대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력해 다양한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정,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역아동센터, 보육 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

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주사위 릴레이, 바구니 썰기, 링 던지기 등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추억을 쌓았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구성원 간의 따뜻한 연대감을 나누는 것은 물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라는 이름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진이엔티, ‘KOOM 2025’ 공식 후원

콘텐츠 제작 파트너로 참여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K-컬처 페스티벌 ‘KOOM(꿈) 2025’를 공식 후원했다.

KOOM 페스티벌은 지난(현지시간)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Duggal Greenhouse)에서 열렸다. 유진이엔티는 콘텐츠 제작 파트너로도 참여했다.

KOOM 페스티벌은 미국 한인 창업자 네트워크 ‘UKF(United Kore

an Founders)’가 주최하는 행사로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 대한항공 등 국내외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이 함께 후원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후원을 넘어 K-컬처와 K-스타트업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는 여정을 담은 콘텐츠 제작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 외교부 ◇대사 △주중국대사 노재현
-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 ◆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옥

부음

▲이중기씨 별세(향년 100세), 이영규(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씨 모친상=15일 오후 8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101호(서문시장앞), 발인 17일 오전 8시, 구미 선산 선영. 053-250-8451

채무승인 후 시효이익 포기 추정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 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위 추정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 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

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종전 추정법리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추정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됐고, 법원은 채무승인이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 채무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

K제약바이오, 따로 또 같이… K신약 위한 활로 찾기



기자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분할, 합병, 신설 등 ‘따로 또 같이’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삼성에프스홀딩스를 신설한다.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는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셀런스’ 등도 새롭게 설치됐다. 삼성에프스홀딩스는 우선 기존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해 온 삼성바이오에프스의 지분을 100% 승계한다.

K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셀트리온그룹은 ‘통합 셀트리온’ 전략을 펼친다. 2023년 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남은 과제인 가운데, 2024년 말에는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설립됐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이며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로부터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의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사업 추진 배경을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 등 북미 지역 현지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진과 구축한 파트너십이 신사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최근 개봉 4주차에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탈환하며 장기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는 재취업을 노린 남자 주인공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내용을 다룬다. ‘가짜 회사’를 꾸며 모집공고를 내고 업계 전문가와 독보적인 이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파악해 접근한다. 실제로 남자 주인공과 이 지원자들은 유망 기업 면접에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 합격자들이다.

충격적인 설정이지만 경쟁에서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약개발처럼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막대한 자본이 얹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쟁보다는 열린 결말이 이뤄져야 한다. 위탁생산과 신약개발, 자회사와 모회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기업 환경에도 모두의 꿈인 ‘K제약바이오’ 위상이 공고해질 길 기대한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8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마음이 편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48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름다. 60년생 길을 다닐 때 핸드폰보다가 사고 날까 두렵다. 72년생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투기보다 실력으로 승부를. 84년생 음주하지 말아야.



소

37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49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깔끔하게 된다. 61년생 체면치레가 손실이 커지니 거품을 줄이자. 7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지시 받는다고 부끄러워 마라. 8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호랑이

38년생 지인의 이간질을 조심해야 할 하루이다. 50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62년생 승진이 되니 천국에 온 듯. 74년생 인생은 언제나 불행 중 다행이다. 86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라.



토끼

39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51년생 머리로 믿지 말고 노력해야. 63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75년생 나 자신을 낮추고 직장 사람을 공경해야 할 때. 87년생 겨울 속의 얼굴은 천사인데 다시 보면 마음이 악마.



양

40년생 여행을 떠나려면 상비약을 챙겨라. 52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챙겨라. 64년생 유쾌하고 상쾌하니 능률도 두 배로 증가. 76년생 슬프고 분하여 복받쳐 오른다. 88년생 마음은 의욕적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뱀

41년생 자녀의 해외파견소식에 마음은 들뜨고. 53년생 매사에 나의 일이라 생각해보자. 6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뒷날까지 말고 미리 거절하라. 77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먼저 세우라. 89년생 변화의 운이오니 이동.



말

42년생 나이 들어 돈거래는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사진다. 54년생 이사하려 하나 너무 많이 올라서. 66년생 이직이 어려우니 인내심을. 78년생 싫은 일을 당하여도 내색조차 할 수 없다. 90년생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양

43년생 당구삼년페풍월(堂狗三年吠風月). 55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67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해야 미래가 평온. 79년생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며 한탄하는 인생. 91년생 저축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할 줄



원숭이

44년생 관절 질환이 걱정되니 계단 조심. 56년생 조상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도. 68년생 친구는 서로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평소에도 돈독히 지내도록. 80년생 암탉이 울어 결국 집안이 망했다는 데. 92년생 이성간 삼각관계를 유의해야.



닭

45년생 집안 청소로 열정이 넘치는 하루. 57년생 회식 때 소지품 조심. 69년생 과음하여 머리 아프지 않게 적당히. 81년생 부모는 자식을 싸움에 노이불사(老而不死)생각만 가득. 9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고 왜 했겠는가.



개

46년생 경쟁력에서 창의력이 빛나는 날. 58년생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듯. 70년생 성과가 더더욱 계속 도전하라. 82년생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놓고 월가왕부하지 말라. 94년생 산소 이장 문제로 회의가 펴



돼지

47년생 과거 재능을 발전시키니 유용하다. 59년생 동업자와는 양보하고 상부상조로 인내. 71년생 일을 만들지 마라. 83년생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 것. 95년생 참아도 이해해도 배우자 덕이 없어 괴로움이 펼쳐지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신분은 있는가

노예근성.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신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힘의 원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노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노예가 되기 싫으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도 있으니 노예근성에 대해 마구 말할 일은 아니다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은 있으나 그것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자는 천성적으로 노예다.”라고 했는데, 이는 물리적 힘으로 노예가 된 경우보다 정신적으로 주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짐작해본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에픽테토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애초에 노예였다. 어린 소년 시절, 그의 주인이었던 이가 다리를 비틀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고된 노동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철학책을 읽었으며 나중에는 스토아철학의 스승 반열에까지 올랐다. 또한 자기의 지적 능력과 철학적 사고 덕분에 로마황제의 벗이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즉, 그가 노예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능력 밖 상황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선택지인 좋아하는 철학책을 읽으며 사변을 깊게 닦아나갔다. 결국에는 존경받는 스토아학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당시 브라만들이 자신들 신분의 고귀함을 내세우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의 고귀함은 타고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바른 지에 달렸으며, 따라서 천민인 수드라라 할 지라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면 그가 곧 브라만이며 고귀한 사람이다.”라 했는데 성인의 통찰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GPR 탐사’ 10년… 조사연장 12배

지반 1km당 공동 수 5분의 1로 감소
내년부터 연간 1.8만km 탐사 계획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GPR(지표투과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조사연장은 약 12배 늘고 1km당 발견된 공동(땅속 공간)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공간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하는 대표적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례 탐사해 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km에서 지난해 기준 약 7169km로 약 11.7배 증가했다. 시는 연말까지 9000km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km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하고, 차량형 GPR 장비 3대를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해 총 10대(차량형 7대, 핸드형 3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조사연장은 총 3만 3129km에 달하며, 이 기간 발견된 공동은 총 7760개로 집계됐다.

탐사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발견되는 공동의 수도 늘었으나, 1km당 공동 발견 건수는 2015년 0.41개에서 올해 0.08개로 10년간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를 통해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굴착공사장에 주변에 대한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에 대해 매월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점검 중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AI 활용해 도로·터널 안전 강화

지하차도 침수, 터널 화재 등 긴급조치

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지하차도 2개소, 터널 14개소)의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자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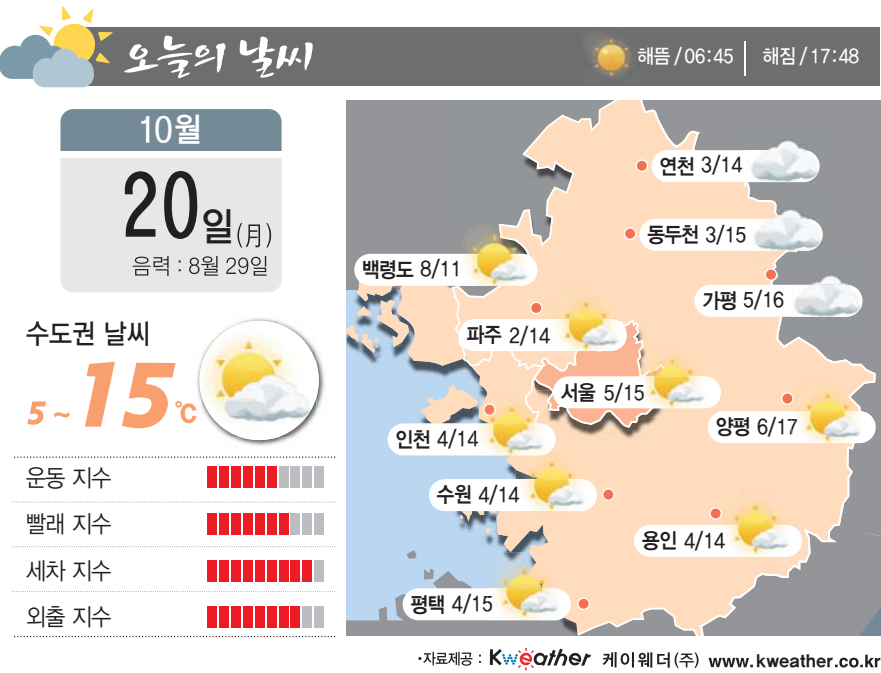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의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CCTV에 AI 프로그램을 연결함으로써 지하차도 침수, 터널 화재 등 다양한 상황 발생이 즉시 관리사무소로

전송해 긴급조치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용인 문수산 터널에서도 소방본부·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소방훈련을 실시하면서 AI를 활용한 연기 감지 및 주요 기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했다. 화재 발생 시 AI 시스템은 연기를 즉시 감지하여 사고 상황을 모니터 화면에 송출하고, 경보음과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송되는 시스템을 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CCTV 관제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현장여건에 부합하게 맞춤형 AI 시스템을 지방도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지하차도 2개소(화성 천천, 속곡)에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성능 및 현장여건을 고려해 전체 지방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김종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日 731부대의 잔혹한 인체실험 폭로 獨학자 책 출간돼
▲러, 우크라 전력망 대규모 공격…키이우 등 우크라 8개 지역 정전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행정부, 난민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백인 우대”
▲中관영매체 “美 폐식용유 수입 중단, 무시할 만한 수준”

▲日자민당·유신회, 연립정권 협의 착수…정계 재편 급물살
▲9월 인도 무역적자 321억\$로 확대… 트럼프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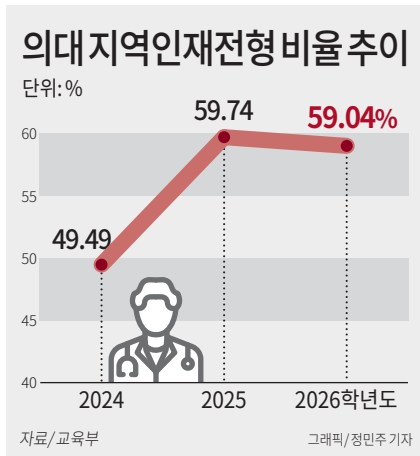
글로벌대학, 지역인재전형 줄여 지역 균형발전·선순환 목표 무색

12개 대학, 지역인재전형비율 감소
그 중 7곳, 정부지원 ‘글로벌대학’
김문수 의원 “교육부가 관리해야”
교육부 “지역인재전형 확대 독려”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대 혁신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글로벌대학’ 상당수가 이에 포함돼, 지역 인재 양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25학년도 대비 감소한 대학은 12곳,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대학은 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이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



2026학년도 59.04%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소폭 하락했다.

2026학년도 기준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78.57%, 가장 낮은 대학은 22.78%로, 모두 글로벌대학이었다. 전국 26개 의대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20%대인 대학은 3곳으로, 강원 지역 사립대가 주를 이뤘다.

정부 권고 비율(60%)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총 10곳이며, 이 중 2곳은 기존 글로벌대학, 3곳은 최근 지정된 글로벌대학이었다. 다만 법정 의무선발 기준(지방대 40%, 강원·제주 20%)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올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전년 대비 12.35%p 오른 C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18.01%포인트 줄어든 D대로, 두 곳 모두 글로벌대학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 권고보다 낮거나 오히려 비율을 줄인 대학 다수가 글로벌대학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라며 “지역인재 양성고 지역 정주 선순환의 모범이 돼야 할 글로벌대학부터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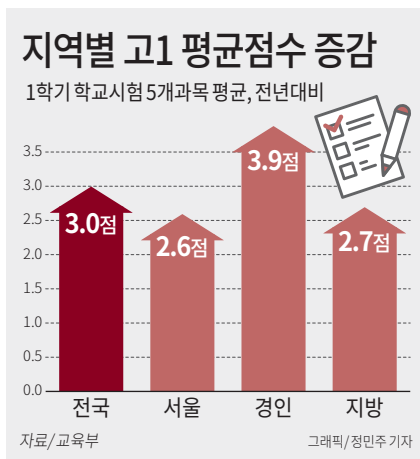
내신 5등급제 앞둔 고1, 시험 평균점수 상승

고1학기 시험점수 전국 일제히 상승
5등급제로 상위권 동점자 늘어날 것
고교 내신 변별력 확보 고민 깊어져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면 전환되는 가운데, 첫 적용 대상인 현 고1 학생들의 1학기 학교 시험 평균점수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개편을 앞두고 학교별 원점수와 등급 간 격차, 그리고 대학 입시 반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종로학원이 전국 1781개 고등학교(일반고 1693개, 특목·자사고 88개)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주요 5개 교과와 평균 점수는 전년 67.1점에서 올해 70.1점으로 3점 상승했다. 학업성취도 A등급(90점 이상) 비율도 20.5%에서 23.7%로 3.2%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점, 경기·인천(경인권)이 3.9점, 지방이 2.7점 각각 상



승했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서 시험 평균점수가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세종시가 평균 74.0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기록했고, 충남은 전년 대비 4.7점 상승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목·자사고의 주요 5개 교과 평균점수는 79.6점(전년 78.4점 대비 1.2점 상승)이었으며, A등급 비율도 48.5%(+2.9%p)로 높았다.

학교별로는 ▲외대부고(93.1점) ▲정

심국제고(92.0점) ▲안양외고(91.9점)가 평균점수 상위권에 올랐고, A등급 비율은 ▲서울국제고(94.4%) ▲대일외고(88.9%) ▲안양외고(87.4%) 순으로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상위 10%가 1등급, 상위 34%까지가 2등급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상위권 학생 간 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현장에서는 내신 변별력 확보와 학생 원점수 관리 사이에서 시험 난이도 조정이 어려워지고, 대학 역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 내신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1·2등급 동점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이 등급뿐 아니라 원점수와 표준편차를 함께 반영할 경우, 학교 간 시험 난이도에 따른 불이익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체험열차로

휴업 3년 3개월만에 운영재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업 중이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체험열차로 변경에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17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재개 기념행사’를 열고 주 6일(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탑승 가능하게 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노선은 6개 역사, 총 6.1km 구간이며,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서 관광·체험열차로 변경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16년 2월 대중교통시설로 개통한 뒤 2022년 7월부터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 효율화 진단을 위해 운행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3년 3개월만에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유통업계
가을맞이
대규모 할인
L1

metro®

Life

K-제약·바이오
예방·진단 중심
정밀의료시장 공략

L2



“기술로 계획하고, 감정으로 기록… 사람 중심의 여행 설계”



새벽을 여는 사람들

트립비토즈
정지하 대표

여행을 ‘기술의 산업’이 아닌 ‘인간의 감성’으로 복원하려는 한 기업가의 철학이, 한국 스타트업의 다음 좌표를 말해준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새벽 5시 반. 도시의 해가 뜨기도 전에 트립비토즈 사무실 한쪽 불이 켜진다. 정지하 대표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정지하 대표는 “이른 새벽은 생각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라, 조용할수록 문제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는 2017년 설립된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여행의 감성’을 중심으로 기술을 결합해 숙박·리워드·결제·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2024년부터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iOL과 협력해 중동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정 대표는 “여행은 감성의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숙박과 결제, 커뮤니티의 흐름이 한 번만 끊겨도 전체 경험이 제로(0)가 되기 때문에 기술로 그 곱셈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립비토즈의 시간을 ‘뱃돌을 돌리는 과정’에 비유했다. “기업의 성장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찰과 견딤의 결과”라며 “처음엔 마찰이 크지만 꾸준히 돌리면 관성이 붙는다. 트립비토즈는 그 관성을 만들어온 시간 속에 있다”고 전했다.

여행업계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전 세계 OTA의 70% 이상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국내에서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트립비토즈는 오히려 플랫폼을 재정비하며 체력을 길렀다.

정 대표는 “당시 대부분이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며 “여행의 본질은 이동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확인한 시

기였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가 주목하는 건 기술보다 사람이다. 정 대표는 “AI 시대의 인재는 회복탄력성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면 기술은 방향을 잃는다”며 “트립비토즈는 기술이 아니라 질문을 키우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AI가 여행을 바꾸는 시대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AI가 개인의 여행 루트를 추천하는 시대지만 결국 그 여정을 기억하는 건 인간의 감정이다. 기술은 인간의 여정을 보조해야지 대신할 수는 없다.”

실제로 트립비토즈는 감성 기반 추천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다. 데이터가 아닌 감정 키워드로 숙소와 경험을 연결한다.

정 대표는 “효율보다 경험, 정답보다 맥락을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싶다”며 “기술이 감성을 따라올 때 여행은 비로소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정지하 대표가 최근 대통령 대담에서 던진 ‘디지털 영토전쟁’이라는 개념은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그는 “한국의 물리적 영토는 전 세계의 0.07%에 불과하지만 K-웹이 만든 디지털 영토는 1% 수준까지 확장됐다”며 “싸이월드, 리니지, 네이버에서 자란 세대가 문화와 경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틱톡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와 문화가 결합된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기술은 빠르지만 세대 간 이해의 간극이 크다. 그 벽을 허물어야 진짜 디지털 강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쌓인 콘텐츠가 약하다는 문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

2017년,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설립
기술 결합해 숙박부터 커뮤니티까지
팬데믹 여행업 위기에 플랫폼 재정비
인간의 감정 중심… 여행 흐름 연결해

데이터-문화 결합, 디지털 영토 넓혀
기술과 감정 잇는 순환구조 만들고파

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정 대표는 “AI 인프라의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이야기를 쌓느냐에 있다”며 “트립비토즈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기록되는 플랫폼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경제성장보다 세대 간 이해에 있다.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건 세대를 관통하는 이해의 방식”이라며 “공자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대 간 소통이 바뀌어야 진짜 디지털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한 ESG의 틀로 보지 않는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속가능성”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핵심은 다양성과 상생이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립비토즈는 기술기업이지만 내부 경영 철학은 공존을 강조한다.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기획자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감정 곡선’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 대표는 “ESG는 제도지만 지속가능성은 철학”이라며 “소비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는다. 기술도 사람의 신뢰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품격’으로 본다. “격변의 시대에 리더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희생”이라며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류의 위대한 리더들은 비폭력과 관용으로 세상을 바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관용이 제도화될 때 구성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다양성이 경쟁력이고 포용이 곧 혁신이다”고 말했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상상력은 두 방향으로 향한다”며 “더 멀리, 우주로 혹은 더 깊이 자기 자신 안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트립비토즈는 이 두 축을 잇는 여행을 만들고 싶다”며 “AI가 여정을 설계하고 인간은 감정을 기록하며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의 영감이 되는 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행이 산업이 아닌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기술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인간의 기억을 정리하는 언어가 된다.

정대표에게 트립비토즈는 결국, 그 언어를 번역하는 회사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된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시간, 기술보다 인간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

그가 말하는 여행은 데이터의 여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뭉뚱돌리는 그의 손끝에서 기술은 조금씩 사람의 온도를 닮아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트립비토즈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GITEX 글로벌 2025’에서 글로벌 여행 기술 플랫폼 기업 iO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트립비토즈



▲‘시즌 8승 도전’ 안세영, 야마구치에 설욕전… 덴마크오픈 결승 진출 /사진 뉴스시스

▲1년 만에 한국 대회 나선 이승택 “다음 시즌 PGA 목표는 시드 유지”

▲한국 꺾은 모로코, U-20 월드컵 결승서 아르헨티나 만난다

▲MLB 골드글러브 후보 발표…토론토 클레멘트, 3루·유틸리티 동시 수상 도전

▲CJ ENM, 워너브라더스와 손잡는다…K콘텐츠 공동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 ‘광장’, 위 온 스크린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한쪽 어깨가 젖어가도
국민을 위한 우산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 곁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평온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13만 명의 경찰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찰의 날 80주년
그 변함없는 헌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과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10월 21일은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경찰의 날'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KB금융그룹